

濟州道 北濟州郡 楸子面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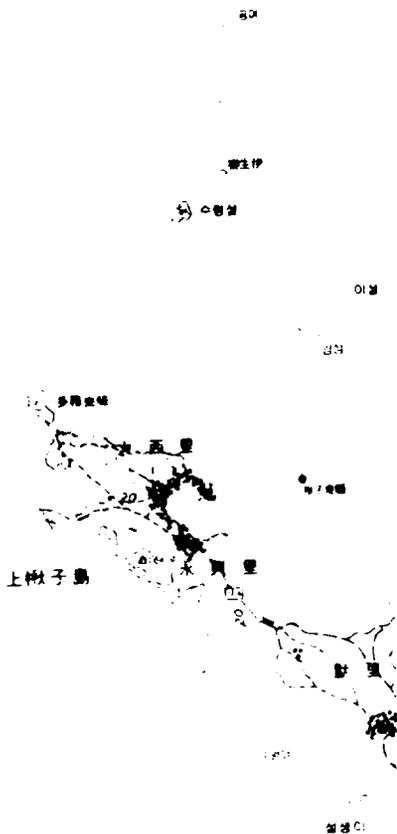
(1990. 7. 27 ~ 1990. 7. 30)

1. 조사경위
2. 마을개황
3. 방 언
4. 민 요
5. 설 화
6. 신 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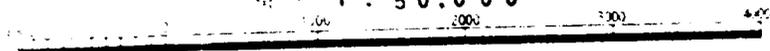
(추자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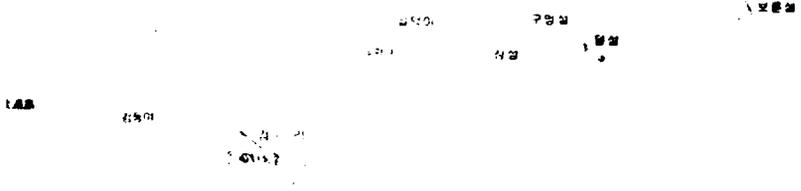


楸子面 地圖



比例尺 1 : 50,000





子 群 島



北 濟 州 郡

楸 子 面

學術調查 經緯

국어교육과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現地 學術調查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응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견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意義를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실시되는 현지 학술조사는 現地の 方言, 說話, 民謠, 信仰 등의 분야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국어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또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학술조사를 벌인 곳은 ①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1976. 8) ②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1977. 7) ③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1978. 8) ④ 南濟州郡 安徳面 德修里(1981. 7) ⑤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1983. 8), ⑥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1984. 8) ⑦ 南濟州郡 安徳面 大坪里(1985. 8) ⑧ 南濟州郡 城山邑 温平里(1986. 7) ⑨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1987. 8) ⑩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1988. 7) ⑪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1989. 7)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12회 현지 학술조사는 1990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3박4일 동안 北濟州郡 楸子面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이전까지의 조사지역과는 달리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도에 속해 있으면서도 생활권은 전라도권인 아주 특이한 지역이다.

조사 준비단계로 교통편, 숙식, 취사문제의 해결과 마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했다.

조사에는 學科 교수님들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이 참여하였다. 학술조사 지도는 梁重海·尹錫山(民謠), 玄容駿(信仰), 崔圭一·金泰琨(方言), 文聖淑·安成洙(說話) 교수님이 해주셨고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

(()속은 재학생년입)

方言: 오화진(4), 고경숙, 문경순(3), 강원갑, 홍은희, 김종철, 현경미

(2), 조정혜, 문숙영, 김현주, 김범진(1)

說話: 임선향(4), 전영희(3), 강필재, 오수안(2), 박지영, 이정숙, 강정실, 홍은미, 김미자(1)

民謠: 한창훈(4), 김현정, 김성숙(3), 빈성희, 강인영, 강문영, 김미형(2), 장희철, 강성희(1)

信仰: 강순희, 이승아(4), 강철수, 이수란, 현정애(3), 김미경, 김진희(2), 양은실, 부원주, 이영훈, 강미녀(1)

재학생 이외에도 문무병, 현승환 선생님을 비롯 강정식, 오창환, 이영훈, 이창우, 전은영, 오동식 선배님들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

3박 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7월 27일): 오전 9시발 카페리호에 승선, 11시에 추자면 대서리에 하선했다. 楸子國民學校에 짐을 풀고 면장님으로부터 마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반별답사를 겸한 1차 조사활동을 폈다.

제2일(7월 28일): 첫날의 1차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제3일(7월 29일): 지금까지의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반장모임을 통해 점검한 후 반별로 계속 조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조사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토론을 했고 반별 자체평가를 가졌다.

제4일(7월 30일): 미비한 조사를 보충,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평가회를 가졌다.

끝으로, 3박4일간의 조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추자면장님을 비롯한 마을주민 여러분들과 楸子國民學校 교장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조교선생님을 비롯, 무더운 날씨에도 기꺼이 뺏길을 달려와 격려해 주신 선배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報告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여러 指導教授님들과 원고 정리에 수고가 많았던 반장 및 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 을 개 황

목 차

- | | |
|------------|-----------|
| I. 자연환경 | III. 인문개황 |
| II. 역사적 배경 | IV. 산업 구조 |

I. 자연환경

42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진 추자군은 행정구역상으로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속한다. 42개의 섬 중에 유인도는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 4개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주민이 상추자도와 하추자도에 거주하고 있어 보통 '추자'하면 이 곳을 생각하게 된다. 추자도는 제주시와는 28마일, 그리고 목포와는 58마일 떨어져 있어 거리상으로는 육지부보다 제주도와 훨씬 가깝다. 그러나, 이 곳 사람들은 대부분 전라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며, 주로 육지부를 광래하면서 살아왔다. 추자도는 역사적으로도 전라도와 제주도로 관할 행정기관이 빈번하게 바뀌어 왔다.

상추자도에는 대서리, 영흥리 2개리가 있고, 하추자도에는 목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4개리가 있다.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는 연륙대교로 이어져 있어, 이 연륙대교를 통하여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추자도 일대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각종 회유어족과 완착어족

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추자도는 어업의 근원지 구실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9할 이상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소득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농경지가 매우 협소하고 토질이 척박할 뿐 아니라, 풍수해가 심하여 농업소득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제주와 목포간을 운항하는 카페리 2호와 안성호가 매일 교대로 추자도를 거쳐 가고 있는데 추자항에 바로 배를 댈 수가 없어 종선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 최근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제주를 왕래하기도 하는데 여유있는 사람이나, 화급한 일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요금이 비싸 쉽게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상추자도와 하추자도에는 중형버스가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섬 안 나들이에 큰 불편은 없다.

추자도내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렵고 생활필수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산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육지부나 제주도에서 배로 운송해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가 제주나 육지부보다 매우 비싼 편이다.

II. 역사적 배경

추자도는 본래 천연림이 울창한 원시 무인도였는데, 서기 662년 신라 문무왕 시대에 탐라가 신라에 귀속되면서 상선 등을 이용한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뱃사람들이 제주와 육지부를 오가다가 풍랑이 심해지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지금으로부터 700여년 전인 고려 원종 12년에 '후풍도(候風島)'라 이름하게 되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전라북도 각 연안부락으로부터 이주하여 왔으나, 그 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고려 충정왕 대에 이르러 왜구의 빈번한 침입을 피해 본도 주민을 제주 조공포(현 제주시 내도, 외도리)에 이민시켰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는 이미 상당한 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언제 재입주를 시작했는지는 기록이 없으

나, 목호(牧胡)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본도에 온 최영 장군이 난을 평정했던 고려 공민왕 23년(1374) 직전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추자는 본래 가까운 전남 완도에 속해 있었으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때 육지부 각 군 수령들의 권한에 따라 영암, 나주 등에도 수증했으며 이곳의 탐관오리들로부터 조공을 빙자한 무수한 약탈을 당한 것으로 구전되어 온다.

그 후 조선조 달인 순조 21년(1821)에는 정식으로 전남 영암군에 예속되며 1831년에는 비로소 濟州牧官에 이속되어 제주와 관련을 맺고 이때부터 楸子別將制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894년(고종 31년)에는 완도군이 창설되면서 다시 완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상추자, 하추자 2개면으로 나뉘는 한편 鎭所가 두어지게 되었고, 현재의 面制와 비슷한 直綱制에 의해 다스려졌다. 그 후 일제하인 1941년에는 濟州島司가 추자를 아울러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추자는 濟州道 13개 면중의 하나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Ⅲ. 인문개황

추자면 관내에는 현재 1,113가구 5,208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간한 경작지에 보리, 고구마 등을 가꾸기도 한다. <표1>

<표1> 가구 및 인구분포

(단위 : 가구, 명)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어 가	기 타	계	남	여
1,113	991	122	5,208	2,656	2,552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주요 공공기관으로는 대서리 소재 면사무소를 비롯 우체국이 상추자도와 하추자도에 하나씩 있으며 이외에도 지서, 수협,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등이

있다. <표2>

<표2> 주요 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면	지서	학교	우체국	수협	전화 분지국	한전 발전소	등대 관리소	어선 통제소	한국별기 관리소
개소	14	1	1	3	2	1	1	1	1	1	1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교육기관으로는 대서리에 1925년에 설립된 추자국민학교와, 신양리에 1955년에 설립된 추자중학교, 1941년에 설립된 신양국민학교가 있다. 각 학교의 학생수는 <표3>과 같다.

<표3> 학생 현황

(단위 : 명)

학교 학 년	추 자 국 민 학 교						신 양 국 민 학 교						추 자 중 학 교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남	27	43	30	46	48	33	12	12	15	8	15	23	55	54	47
여	20	29	32	21	31	36	14	9	14	17	19	25	42	49	50
계	47	72	62	67	79	69	26	21	29	25	34	48	97	103	97

(1991년 현재. 부제주군교육청 제공)

문화시설면에 있어서는 주민의 9할 이상이 어업을 전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형어선에 현대식 어로장비를 갖추어 어획고를 올리고 있어, 이덕택에 호당 소득이 높아져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 호당 소득은 약 560만원, 급수율 99%, 전화 보급율 82%, 주택보급율 78%, TV보급율 75%, 도로(안길)포장율 90% 이상 등으로 비교적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표4> <표5>

<표4> 주민 생활수준

(단위 : %)

주 택	도로포장	전 기	전 화	T V	신 문	냉장고	비 고
82	62	99	86	91	13	41	호당소득 : 5,599천원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표5〉 상수도

급 수 (給 水)		1일1인 급수량
인 구	급 수 율	
5,104명	98 %	40ℓ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교통은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내왕하는 중형버스가 시간마다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의료기관은 정부의 무의촌 진료소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진료소를 확장 신축중이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표6〉,〈표7〉

〈표6〉 차량보유 현황

(단위 : 대)

계	중형버스	봉 고	승 용	소형화물	중 기
37	3	3	4	23	4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표7〉 보건위생 시설 현황

의 료 시 설				환 경 위 생			식 품 위 생			
보 건 소	보 건 진료소	약 국	약 방	유치장	숙 박	미 용	대 중음식점	다 방	간 주점	식육점
1	1	1	1	5	5	5	16	8	5	2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IV. 산업구조

추자도는 어업의 근원지로 주민 대부분이 어업을 전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해산물을 가지고 강진, 해남, 진도 방면으로 가서 물물교환을 하곤 했었다고 한다. 1919년 5월에 자체 어업조합을 창설하여 생산과 매매를 조정하여 주민 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근년에는 어군이 특정 시기에 유

동 집결되지 않는 바람에 어획고가 감소하여 주민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 이외에 개간한 경작지를 활용하여 보리, 고구마 등을 재배하기는 하나, 본래 토질이 척박하여 해초류, 인분 등을 시비하다가 근년에 금비를 사용하여 보았으나, 지력 감퇴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풍수해의 피해로 말미암아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다. 특히 여름작물은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고구마 및 채소 이외에는 가꿀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라 한다.

〈표8〉 토지 이용 현황

(단위: km, %)

경 지	임 야	기 타
1.72 (25)	4.72 (68)	0.50 (7)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표9〉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어 류	조 개 류	해 조 류	기 타
생 산 량	890	98	100	18
생 산 액	4,375	575	220	46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표10〉 농산물(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ha, %)

구 분	맥 류	콩 류	서(薯)류	유 채	참 깨	마 늘	고 추	배 추	무 우
면 적	44	52	41	40	10	6	8	5	3
생 산 량	108	66	307	70	4	35	6	277	103

(1990년 현재, 추자면사무소 제공)

方 言

目 次

- | | |
|-------------|---------------|
| I. 의생활 어휘 | V. 어 업 |
| II. 식생활 어휘 | VI. 가축·곤충·새이름 |
| III. 주생활 어휘 | VII. 지 명 |
| IV. 농 업 | |

I. 衣 生 活

1. 평 상 복

- ① 저구리(한집·숨·두건 저구리)
※ 두건 저구리: 숨 넣은 저구리
- ② 치매 (속치매/겉치매)
- ③ 바지 (굴중: 밖에 입는 반바지, 뉘비바지: 바다에 나갈 때 입는 바지, 男)
- ④ 웃통이(알통)
- ⑤ 적삼(上衣)] 중적삼
- ⑥ 중의: 중우(下衣)] 중적삼
 등지끼(上衣), 무중우(下衣)
- ※ 헐끈: 허리끈
- ⑦ 고쟁이: 여자 속옷

- ⑧ 팔배 : 설, 명절에 노인들이 입는 상의
- ⑨ 두루마기
- ⑩ 조끼
- ⑪ 다비 : 양말

※ 여자들이 옷 입는 순서 : 잠뱅이(속옷) - 고쟁이 - 중우 - 속치매 - 겹치매

2. 관혼상제의 의복

- ① 요질수질 : 머리와 몸에 감는 새끼로 만든 끈
- ② 건 : 상 났을 때 쓰는 마포로 만든 수건 종류
- ③ 행정 : 상 났을 때 발목에 매는 천
- ④ 상정막 : 상제가 짚는 막대
- ⑤ 사자신
- ⑥ 관복신
- ⑦ 굴복 : 제사 끝날 때 꿇어 앉아서 집사가 굴복을 차례차례 벗김
- ⑧ 마포옷
- ⑨ 쾌재 : 절궁 치는 사람이 입는 옷
- ⑩ 관복 : 결혼할 때 입는 옷
- ⑪ 사모관대

3. 기 타

1) 머리모양

- ① 낭지머리 : 쪽 튼 머리
주로 은비네를 꼳았다.
- ② 들레머리 : 머리를 양가닥으로 땡아서 양 옆으로 올린 머리
- ③ 땡기
- ④ 쪽두리

2) 신

- ① 깔찌니 : 헝겊베로 맹글어서 쇠가죽으로도 맹글고, 맹피가죽으로도 맹글

고. 돈 많은 사람 신째.

- ② 진신 : 비와 눈 올 때 신고 가는 것.
- ③ 모른신 : 뼈 가죽으로 모른 신. 젖은 디는 못 신고.
- ④ 짚신 : 짚새기 고운 신.

나락써 나오는 짚으로 만든 신

- ⑤ 나막신 : 비 올 때 신음.

3) 모자류

- ① 삿갓 : 주로 비 피할 때
- ② 마례기 : 밀짚모자
 밭에 나갈 때 쓰는 여름 모자(男, 女)
- ③ 방화모자 : 겨울에 사용.

4) 보선

남자들도 보선이지, 아기들도 보선이고 다 보선이었어.

- ① 숨버선(소개버선) : 숨도 놓고, 소개 숨 놔.
- ② 젖버선 : 여름에 신는 보선.

4. 옷감 · 바늘질용구 · 침구

1) 옷감류

- ① 모시베 : 죽은 사람 문 입혀.
- ② 맹기
- ③ 광목 : 너븐 것.
- ④ 백목
- ⑤ 오양목 : 옥양목
- ⑥ 비단/공단
- ⑦ 갑사 : 개끼옷 허는 그 식이라.

옛날에는 다 미명베로만 그런 것을 짰어.

2) 바느질 용구

- ① 바늘 : 바늘
- ② 꼴미 : 꼴무

- ③ 가새 : 가위
- ④ 대리비 : 다리미
- ⑤ 마깨 : 방망이, 빨래할 때 두드리는 것
- ⑥ 복시미 : 바늘이 녹슬지 않게 놔 두는 곳
※ 싹뚝 : 녹 시민 가는 것.
- ⑦ 단초 : 옛날에는 고리라고 하재.
옛날에는 이 고리 보고 고리라고 하재 단초라고도 해서.

3) 침 구

- ① 왕골재 : 여름에 깔고 자는 것
- ② 요 : 솜요로 전방 깔았어.
- ③ 흠이불 : 여름에 덮는 이불
- ④ 베개 : 옛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든 큰 베개를 진베개라고 하고, 머를 넣나 하면 나락 혹은 짚을 너서 베개에다.

II. 食 生 活

1. 밥 종류

- ① 쌀밥
- ② 보쌀밥 : 보리쌀로 지은 밥.
- ③ 가래밥/가리밥 : 보리쌀 갈아서 만든 밥
- ④ 조밥/진염쌀밥/모조쌀밥/서숙밥 : 조로 만든 밥
- ⑤ 단지기밥 : 쌀과 보리를 섞어서 만든 밥
- ⑥ 수수밥/쭈시밥 : 옥수수로 만든 밥
- ⑦ 툷밥 : 툷을 과서 만든 밥
※ 잠곡밥이라 해서 툷밥이 제일 자와.
※ 서숙(조)은 쭈시쌀밥 할 때 엉겨서도 먹고 떡도 해 먹고.
- ⑧ 감재밥 : 고구마로 지은 밥
- ⑨ 콩팍/콩밥 : 콩으로 지은 밥

2. 국 종류

- ① 실가리국 : 배추를 삶아서 넣은 국
- ② 날배치국 : 배추를 뜯어서 넣은 국
- ③ 무시국 : 무우국
- ④ 미역국
- ⑤ 삼치국, 합아치국은 가실(가을)나른 길린다.
- ⑥ 수재비 : 보리쌀을 갈아서 채로 쳐 그 가리를 빠서 수재비를 해 먹었어.

3. 범벅 및 떡 종류

- ① 혼떡(혼떡)/가래떡/시리떡
- ② 찰갈떡/찰떡/몹쌀떡/참쌀떡
- ③ 서숙떡
- ④ 쌀떡
- ⑤ 모양에 따라 : 행편/생편, 지름떡, 밀가리떡

4. 김치 종류

- ① 배치김치
- ② 무시김치
- ③ 상초김치
- ④ 수컷김치 : 썩갓김치
- ⑤ 술지 : 새우리김치
- ⑥ 물지 : 물김치
- ⑦ 무시로 만든 것 : 총각지, 열무
- ※ 무시종류 : 원두무시, 단광무시
- ※ 빨근갓 : 김치 담글 때도 갓을 이용한 게 맛있고.

5. 죽 · 술 · 젓 종류

1) 죽 종류

- ① 녹두죽

② 혼죽 : 흰쌀로 끓인 죽

③ 팔죽 : 동짓날에 썬 먹는다.

※ 콩을 삶아서 여림(여름)에는 콩냉을 해 먹는데, 콩죽은 안해 묵어.

④ 서숙죽/진엽사죽/모죽사죽

2) 술 종류

① 막걸리

② 단술 : 누룽 뽀사 놓고 술과 밥 섞은 것을 끓여서 설탕 친 것

③ 돈방주 : 막걸리를 반혀서 한 그릇에다 담고 쌀 끓여서 넣고.

3) 젓 종류

① 맬젓/맬치젓

② 기젓 : 게젓

③ 담추젓 : 홍합으로 만든 젓

※ 홍합 말린 것 : 모른 담추

④ 자래젓 : 자리젓

⑤ 샘복젓 : 전복젓

6. 식 기

① 낫사발 : 낫그릇/녹밥그릇

② 나무박죽 : 밥 지을 때 밥 짓는 거.

③ 밥구리 : 밥에 갓을 때 여럿이 먹을 수 있도록 밥 내놓는 것

④ 사그그릇 : 델(밥그릇)

대접/사글(국그릇)

⑤ 지맹이 : 콩·팥 등 곡식을 담아 놓아 놓으면 종자로 쓸 때 좀 안 나고
벌레 안 먹고.

⑥ 쇠주독 : 술 담아 놓던 그릇

⑦ 지기접시 : 짓상 차릴 때 밑받침 달린 것

⑧ 눈백이 접시 : 제사 명절 때 반찬 넣는 것

⑨ 사그중발 : 평상시 반찬 담는 거

⑩ 종지기 : 간장 넣는 거

- ⑪ 도매 : 도마
- ⑫ 짓상 : 제사상
- ⑬ 외상
- ⑭ 도리판상 : 둥그런 상
- ⑮ 짓동 : 짓갈 담은 항아리
- ⑯ 물양 : 김치나 장 담아 먹는 그릇
- ⑰ 오가리 : 단지보다 조금 큰 거
- ⑱ 수끄락통 : 수저 놓는 통
- ⑲ 서랭이
- ⑳ 국재 : 국자
- ㉑ 기영통 : 설겅이통
※ 설겅이 한다 : 기영 시킨다.
- ㉒ 살강 : 찬장
- ㉓ 도가지 : 독, 항아리
※ 지사독 : 땅에서 흙을 가지고 만든 독, 입구가 넓다.
- ㉔ 박구리 : 대나무로 만든 그릇
□, ○모양 뚜껑 있음
- ㉕ 뒤주 : 쌀 독아지
- ㉖ 쪽박 : 바가지 큰 것
- ㉗ 조응가리 : 표주박

Ⅲ. 住 生 活

1.

- ① 큰채 (안거리) / 사랑채 (밖거리)
- ② 울담 : 담울타리
- ③ 허청 : 창고
- ④ 토재 (뿔마루), 대청 (큰마루)

- ⑤ 뚝 : 막대로 엮어서 만든 돛자리 비슷한 것
- ⑥ 두대 : 바람이나 비를 막기 위해 토재에 치는 것
- ⑦ 멍석 : 원형, 곡식 넣어 말릴 때
- ⑧ 덕석 : 사각형, 곡식 넣어 말릴 때
- ⑨ 지붕
- ⑩ 모리 : 상모루
- ⑪ 기와집
- ⑫ 초집 : 초가집
- ⑬ 지시랑 : 처마
 - ※ 동곳 : 고드름
- ⑭ 짚 : 길
 - ※ 새리파(짚갓) : 마당에서 길까지 단 문
- ⑮ 현관문 : 큰문
- ⑯ 뒤간 : 화장실
- ⑰ 석울청/돼지울청 : 외양간
- ⑱ 도구리 : 돼지밥통
- ⑲ 삼발 : 텃밭
- ⑳ 박석독 : 신발 올려 놓은 돌

2. 부 역

- ① 정지 : 부엌
- ② 부삼 : 아궁이
 - ※ 솔가지 : 자장개비/자장깨비
 - ※ 불때다 : 군불연다.
- ③ 부승 : 부뚜막
- ④ 부수막 : 아랫목
- ⑤ 귀툽 : 굴툽
 - ※ 내 : 연기
 - ※ 검덩 : 그을음
- ⑥ 비땅 : 부지깽이

⑦ 당글개 : 재를 끊어 내는 것

※ 몸지 : 먼지

⑧ 굴목 : 군불

⑨ 성낙 : 성냥

※ 부시 : 강한 돌과 강한 쇠 사이에 본추 (풀이름)를 뺀 것을 넣어 부딪치면 불꽃이 생긴다. 이것으로 불을 얻는다.

⑩ 산태미 : 삼태기

IV. 農 業

1. 농 작 물

① 오이

② 호박

③ 옥수수 : 옥수수

④ 무시 : 무우

⑤ 배치 : 배추

⑥ 고치 : 고추

⑦ 버섯 : 버섯

⑧ 솔/새우리 : 부추

⑨ 찰보리/늘보리/맥주보리 : 보리

⑩ 녹두 : 녹두

⑪ 감재 : 고구마

⑫ 콩

⑬ 서숙 : 조

⑭ 나락 : 쌀

⑮ 팥

⑯ 꿩 : 깨

⑰ 피, 마늘

⑱ 까지 : 가지

⑲ 편뇨 : 갯잎

2. 풀 이름

비름, 오리나무, 때깎 나무, 보례기, 논지심, 코딱지지심, 곤보례, 화단, 가상구, 귀이리, 대우리, 달구새비, 메누리미정기, 메누리순그락, 곰무래

3. 농기구

① 치 : 까서 불리는 것

② 채 : 쓸 때 쓰임.

③ 삽 : 가래

④ 파부, 소시랑

⑤ 호미 : 호무

도치/작두/자부

낫

⑥ 장도리 : 못 뿔 때

⑦ 망치 : 마치 { 나무 : 방맹이
쇠 : 마치

※ 돌 깨는 사람 : 석사치

⑧ 미래 : 보리 고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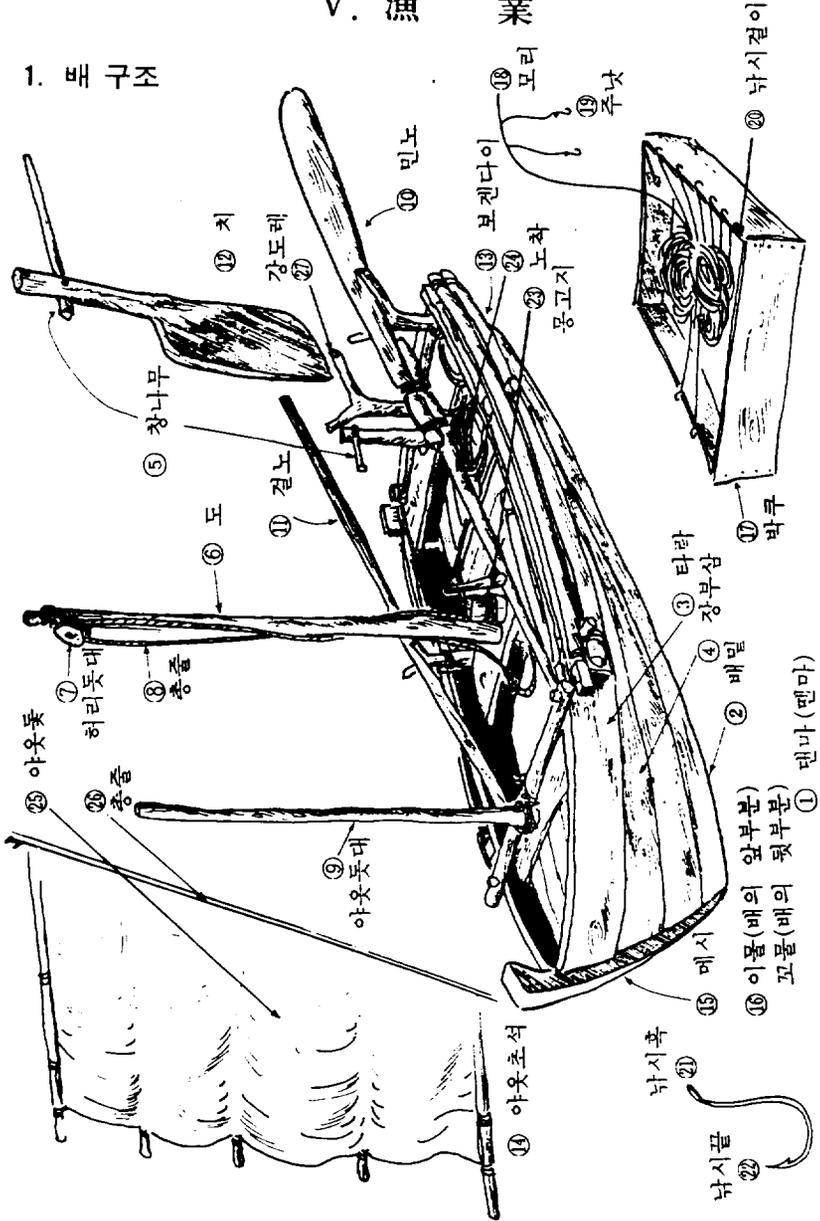
⑨ 곰배 : 흙덩이 고르는 것

⑩ 나사, 정 : 구멍 뚫을 때

⑪ 흘테 : 보리 훑을 때

V. 漁 業

1. 배 구조



2. 魚 名

- ① 멸치 : 멸치 (젓배 : 멸치잡이 배)
 ② 전어 : 전애
 ③ 상어 : 기상애 (귀상어) / 청상애, 한두상애
 ④ 돌고래 : 썰기
 ⑤ 얼룩상어 : 전대미 / 존다니
 ※ 두레비, 비끼 : 전대미보다 큼.
 ⑥ 홍어 : 물가오리 (물개오리) / 나비개오리 / 황개오리
 ⑦ 정어리 : 징어리
 ⑧ 장어 : 짱애
 ⑨ 준어 : 준치
 ⑩ 달도미 / 달뚱 : 달고기
 ⑪ 우럭 : 금촉우 (검은 우럭)
 ⑫ 능성어 : 북바리
 ⑬ 다금바리 : 자바리
 ⑭ 쏘가리 : 가재 모양
 ⑮ 갈치 : 상갈치 : 수염이 길다
 새갈치 : 작은 갈치
 북갈치
 ⑯ 날쟁이 : 날치
 ⑰ 자리 : 자래
 ⑱ 전갱이 : 가라지
 ⑲ 방어 : 부시리
 ⑳ 흙돔 : 지누
 ㉑ 넙치 : 광어
 ※ 도다리 : 작은 광어
 ㉒ 복어 : 북쟁이
 ㉓ 문어 : 문애
 ※ 바닥문애 : 큰 것
 상초문애 : 작은 것

문에 : 보통 큰 것

※ 종지기 : 문어 다리에 등글 붙은 것

㉔ 오징어 : 펍프

※ 삼봉 : 오징어 낚시대

㉕ 주꾸미 : 낙지 작은 것

3. 기 타

- ① 계 : 기
- ② 보말 : 배말 (별배말/참배말/똥배말)
- ③ 소라 : 소리뱅이
- ④ 군보 : 따개배
- ⑤ 반지락 : 판지락
- ⑥ 홍합 : 단추
- ⑦ 굴 : 꿀
- ⑧ 해삼 : 해심
- ⑨ 성게 : 돌방생이
- ⑩ 전복 : 생복
- ⑪ 말미잘 : 홍살
- ⑫ 해파리 : 갈따우
- ⑬ 툇
- ⑭ 파래 : 퍼리
- ⑮ 천초 : 우뚝 가사리
- ⑯ 참물 :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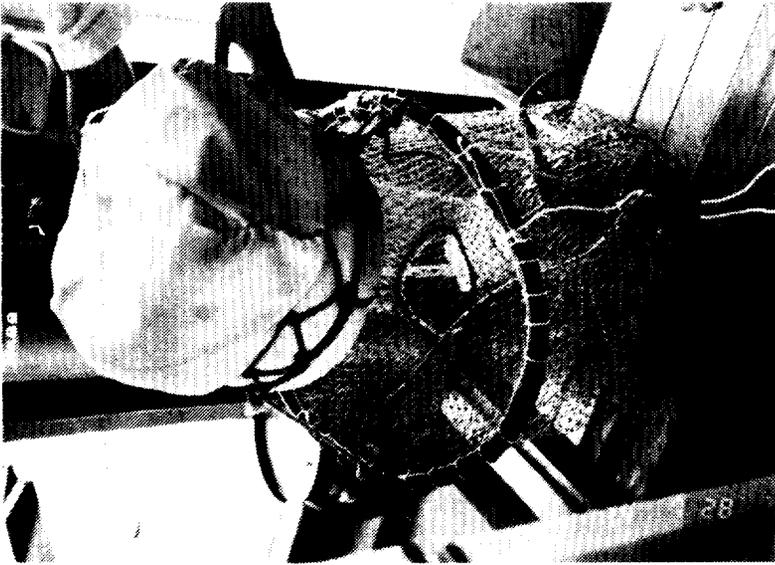
4. 해녀 어휘

- ① 무레꾼 : 해녀, 무레꾼들은 어느 쪽으로 가더라.
 ※ 상무레꾼 : 제일 잘 하는 사람. 해산물 많이 따는 사람
 ※ 서른 무레꾼이 상무레꾼이 됐다.
- ② 물질 : 해녀질, 무질, 무레질간다.
 무레질 가자, 물에 간다 하요.
- ③ 헛무레 : 갯것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 바닷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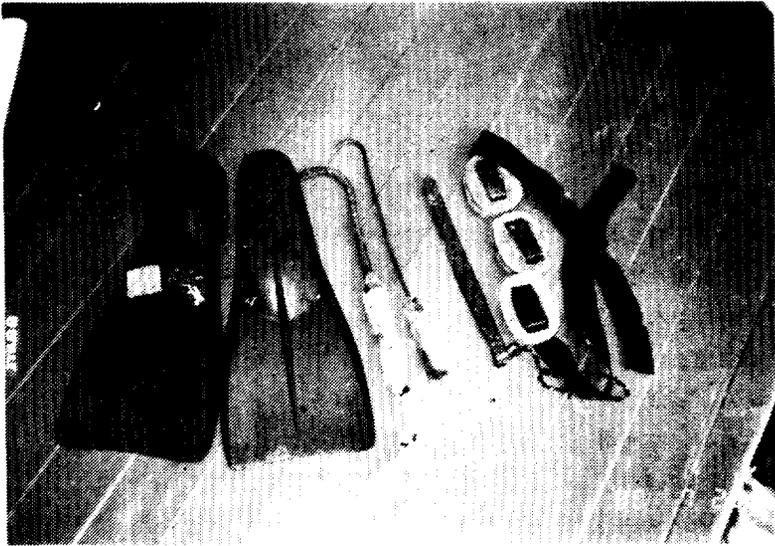
못하는 것

※ 요새는 헛무레만 해진다.

- ④ 우무매러 가자/미역하러 가자.
 ⑤ 갯것무레 하러 가자 : 전복, 소라, 해삼, 오븐재기 잡는 것
 ⑥ 댜섬 간다 : 배 타고 다른 섬에 가는 것.
 ⑦ 원돌 할라고로 가버린다 : 단체로 안 가고 몇 사람만 만 데로 가는 것
 ⑧ 야찬 데서 한다 : 육지 가까이에서의 무레질
 ⑨ 길력시께 : 힘이 세니까
 ⑩ 휘캐소리 : 숨비소리
 ⑪ 해너웃 : 잠뱅이/적삼/물웃
 ⑫ 갯가바위 : 머들
 ⑬ 풍선 : 돛대 있는 배
 ⑭ 우무 : 우뭇가사리
 ※ 갯우무 : 가상에 있는 우무 야찬 데 있고, 갯것의 바위에 있는 것
 ※ 뿔우무 : 깊어 있어 이파리가 많고 길고, 안 깨끗하며, 거무스름함.
 ⑮ 통각 : 풍각, 다시마에 들어가는 그것
 ⑯ 미역
 ※ 암미역 : 길면서도 가운데 대가 있는 것
 ※ 줌미역 : 이파리가 많아 갓고, 가운데 대가 있재.
 ⑰ 포래 : 파래
 ※ 국포래/지포래/달포래
 ⑱ 참물
 ⑲ 툷 : 낮으로 벨
 ⑳ 눈 : 안경
 ㉑ 형서리 : 망서리
 ㉒ 비창 : 전복 따는 도구
 ㉓ 까꾸리 : 오븐재기 따는 도구
 ㉔ 밀 :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고무같이 생긴 끈끈한 것



<형 서 리>



오리발

까꾸리

비창

VI. 가축 · 곤충 · 새

① 송아지 : 성치 (송치) - 중소 - 에미소

② 염소 : 땀소

③ 집오리 : 민물오리

④ 고양이 : 아옹개

⑤ 소 : 속소/암소

⑥ 개 : 속개/암개

⑦ 토끼 : 퇴끼, 태끼

⑧ 병아리 : 땡아리

(달걀 : 달기알)

⑨ 삿갓새 : 씨꿍새

⑩ 파리 : 포리

⑪ 모기 : 모구 (모귀)

⑫ 풍뎡이 : 붕구

⑬ 메뚜기 : 메또기

⑭ 반딧불 : 버젯불

⑮ 구더기 : 구더리

⑯ 벌 : 쏘벌

⑰ 개구리 : 깨오락찌

⑱ 미꾸라지 : 밀꼬락찌

⑲ 쇠파리 : 시퍼리

⑳ 진드기 : 비리

㉑ 독사 : 독새

㉒ 구렁이 : 꾸랭이

㉓ 실뱀 : 썰배미

㉔ 도마뱀 : 동알뱀

㉕ 굴뚝새 : 기뚝새, 귀뚝새

㉖ 울뱀미 : 옥뱀미

- ㉗ 비둘기 : 비둘기
- ㉘ 까마귀 : 까마귀
- ㉙ 매 : 날전이
- ㉚ 술개 : 술갱이

Ⅶ. 地 名

추자군도는 유인도 4개(횡간도, 추포도, 하추자, 상추자)와 무인도 38개를 합해 42개 도서로 이루어진다.

1) 추자도

- ① 대서리 : 大作池
- ② 영흥리 : 寺九味, 절 있는 동네/절골/절골 (지금은 절이 없음)
절금이, 절끼미
- ③ 목리 : 미기

아침해가 제일 늦게 뜬다.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일조시간이 짧아 밤이 빨리 오니 잠을 일찍 자서?

- ④ 신양리 [신양1리 : 어루꾸미, 일끼미, 얼꾸미
신양2리 : 진작지

⑤ 예초리

위의 대서리, 영흥리를 합쳐서 上楸子라 하고, 목리, 신양리, 예초리를 합해 下楸子라고 한다.

- 2) 횡간도
- 3) 추포도
- 4) 무인도

- ① 직구 : 직구 (대서리)
- ② 흑검도 : 검은가리 (대서리)
- ③ 다무래미 : 따무내미 (대서리)
- ④ 수령섬 : 수령섬 (대서리)

- ⑤ 사수 : 사수 (대서리, 영흥리)
- ⑥ 염도 : 염섬 (영흥리)
- ⑦ 예도 : 이섬 (영흥리)
- ⑧ 남덕도 : 남택이 (영흥리)
- ⑨ 각도 : 미역섬 (영흥리)
- ⑩ 청도 : 푸랭이 (묵리)
- ⑪ 섬도 : 섬생이 (묵리)
- ⑫ 수덕도 : 수택이 (신양리)
- ⑬ 외각도 : 밧미역섬 (신양리)
- ⑭ 절명도 : 절맹이 (신양리)
- ⑮ 상도 : 상섬 (예초리)
- ⑯ 덜도 : 덜섬 (예초리)
- ⑰ 혈도 : 구멍섬 (예초리)
- ⑱ 망도 : 보름섬 (신양리)
- ⑲ 대화도 : 큰괭개 (회도)
- ⑳ 소화도 : 작은괭개 (해암도)
- ㉑ 악생이서 : 악생이 (대서리)
- ㉒ 문서여 : 문여 (대서리)
- ㉓ 공서 : 공여 (대서리)
- ㉔ 녹서 : 노른여 (대서리)
- ㉕ 周嶼 : 오동여 (대서리)
- ㉖ 검등서 : 검등여 (영흥리)
- ㉗ 두령서 : 두령여 (영흥리)
- ㉘ 증서 : 시루여 (영흥리)
- ㉙ 등대서 : 등대여 (영흥리)
- ㉚ 경서 : 고래여 (묵리)
- ㉛ 가인서 : 개린여 (예초리)

- ㉔ 우비서:쇠코 (예초리)
- ㉕ 方서:모녀 (예초리)
- ㉖ 오동서:오동여 (예초리, 추포리)
- ㉗ 흑서:가막여 (예초리)
- ㉘ 망서:망여 (신양리)
- ㉙ 우두도:쇠머리 (신양리)
- ㉚ 수령서:수령여 (목리)

※ ()는 관할 리 사무소이다.

〈추자십경〉

牛頭日出 동쪽에 있는 우두섬에서 해가 떠 서쪽에 있는 직구에서 해가
直龜落照 지는 노을의 광경

神臺魚遊 신대(어루꾸미 : 신양 1리)앞에서 고기떼가 노는 것을 수덕(사자
水德落雁 섬)에 있던 기러기가 보고 내려앉는 모습

石頭青山 돌덩어리 같은 푸른 섬의 봉우리 사이사이에 푸른 소나무들이
長作平沙 생겨 멋진 경치를 이루고, 산 밑에 펼쳐지는 장작평사도 일품이
다.

秋浦漁火 추포의 배에서 나오는 불빛과 (추포도에서 멸치가 많이 잡힘)양
橫干追帆 식을 팔아서 필수품을 사 가지고 오는 돛단배가 잔잔한 바다에
서 등실등실 횡간도를 돌아오는 풍경(橫干歸帆)

孤島蒼波 외로운 섬인 과탈섬에 갔다가 그곳에서 부모와 자식을 그리워하
望島守鄉 는 어부의 마음과 망도섬이 우뚝 솟아서 고향을 지키는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한 멀리 있는 망도섬에서 집에 올려고 보니 집은
멀리 있어 해질 무렵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라. (望島愁鄉)

위의 추자십경은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차례대로 말을 이어 나간다.

※ 본 조사에 협조해 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김명근 (46. 대서리. 男)	김말김 (66. 예초리. 女)
박동현 (55. 영흥리. 男)	박향임 (56. 대서리. 女)
김종학 (69. 묵 리. 男)	오태석 (69. 예초리. 男)
박구자 (60. 대서리. 女)	고봉옥 (59. 묵 리. 女)
김중진 (64. 예초리. 女)	



民 謠

목 차

- I. 의 식 요
- II. 노 동 요
- III. 타 령

생활풍습, 문화 등이 제주도보다 전라도와 가까운 관계로 제주도에서는 어디서나 조금씩은 들을 수 있는 부녀자들의 신세타령이나 남성들의 노동요 등이 혼치 않았다. 그리고 사실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기 보다는 악기를 동원해서 흥을 돋우는 형태들이 많았다.

여러가지 이유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서리와 목리에서 그나마 몇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목리에서는 마을의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긴 했지만 악기가 동원되고 실외조사였던 까닭에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자료는 의식요·노동요·타령으로 구분하였고 표기는 구연자의 발음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했다.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다양한 내용들을 찾기보다는 사실 등에 있어 제주도와는 다른 특이한 면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들 수 있겠다.

I. 의 식 요

상어소리

- (1) A : 가담보살
 B : 가나니 보살
 A : 가나니 보살
 B : 가담보살
 A : 아 - 어허어야
 B : 가담보살
 A : 가시거든 가려무나
 나를 두고 가신님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인제 - 가던
 언제 오실라
 북망 산천을
 찾아가니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앞이라고
 뒤를 보아라
 앞이나
 뒤를 보아라
 산을 산천을
 등에 두고서 가니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인제 가던
 언제 오실라
 오실 날짜나
 전해주오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나는 인자
 찾아 간다만
 정든님 단은
 잘 있고
 A : 님도 가네
 나도 간구나
 이별의 황천길로
 나는 간구나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님은 적적
 오지 않고
 당산보를
 가더니만
 사랑
 새벽을
 못 잊고서
 간구나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정든 사람
 정든 고향을
 곁에 두고 가니
 호동왕가를
 등에 두고서
 가니
 B : 아 - 어허야 헤에야

- 잘 가져라
 B : 가람보살
 A : 새벽의 붉은
 꽃이 되고
 B : 가람보살
 A : 산이 되어서
 물이 되겠다
 B : 가람보살
 A : 간다 간다
 나는 간구나
 B : 가람보살
 A : 정든 낭군을
 말에 두고서
 B : 가람보살
 A : 우지 말아라
 B : 가람보살
 A : 너가 날 두고
 그리 갈 줄은
 B : 가람보살
 A : 정말로 정말로
 나는 정말로 가는데
 B : 아 - 어허야 헤에야
 A : 인제 가면
 언제 오실라
 오실 날짜나
 전해주오
 B : 가람보살
 A : 달도 좋네
 달고 밝구나
 날 두고 가는데
 B : 가람보살
 A : 새벽에 떠서
 내가 되고
 낮에 떠서
 날되니
 B : 가람보살
 A : 동네방네 어르신네들
 내 간다고 설워 말고
 날 두고 날 두고서
 잘 사시오
 B : 가람보살
 A : 임 품안에 잠잔 날도
 오늘이라면 이별이오
 이른 춘삼월에
 꽃이 피누나
 B : 가람보살
 A ·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A : 간다 간다
 내가 들어서
 간구나
 A ·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A : 인간 일편에
 사랑 찾아서
 나간다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A : 우지를 말아
 우지를 말아
 나 간다고 설워말아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A : 인자 가면 언제 오실라

오실 날짜나 전해주오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A : 저당산천을 찾아가라
A : 새벽 저 달을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달을 보고서	A : 남아 자라
반겨줘라	정든 남아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잘 있거라
A : 가는구나 가는구나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나는 북망산	A : 인제간들 다시오마
찾아가리	꽃이나 필때 다시보자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B : 너널 너너리 넘자 능화여
A : 앞동산 북망길	A · B : 가람보살 가람보살
저당정국이 웬말이나	가람보살 가람보살

II. 노 동 요

멀치 후리는 노래

(1) A : 어야 받으거라	허리띠 꼬장에 장화를 신고
B : 어야 받아라	B : 어야 받아라
A : 어야 받으거라	A : 달도 좋다
B : 어야 받아라	달이 밝네
A : 이눔도 받고 저눔도 받아라	B : 어야 받아라
오늘도 한배 내일도 한배	A : 어기영차 받으거라
B : 어야 받아라	B : 어야 받아라
A : 어기영차 받으거라	A : 어기영차 받으거라
B : 어야 받아라	B : 어야 받아라
A : 우리 선주가 재수가 좋아	A : 산이라나 사나리여
우물대 꼬작에 동기를 달고	B : 어야 받아라

- A : 물이라면 물도 보고
 임도 보고 꽃도 본데
 너도 한잔 나도 한잔
- (2) A : 어기영차 받으거라
- A : 너는 오늘
 너도 나도 한잔일세
 산도 좋다 날도 좋네
- B : 어야 받아라
- A : ○○라면 눈이 오고
 오늘 사공이 재수가 좋냐
 오늘 사공이 재수가 좋냐
 우리 배 선수가 재수가 좋아서
 오늘도 한배
 내일도 한배
- A : 어기영차 받으거라
- B : 어야디아 받아보세
- A : 받아줘라 받아주게
 내 노래를 받아줘라
- B : 어야 받아라
- A : 어기영차 받으거라
- B : 어야 받아라
- (3) A · B : 아아로 상사디여
- 아아로 상사디여
 A · B : 아아로 상사디여
 아아로 상사디여
 A : 새야 새야 ○○새야
 회수 같은 쾡쾡새야
 B : 아아로 상사디여
 A : 우리님 떠나
 정든님을 만난 새야
 B : 아아로 상사디여
 A : 나도 가고
 달도 따라서 가는데
 뱃고동도 ○○○여
 B : 아아로 상사디여
 A : 아아로 상사고나
 A : 달도 좋다 달도 밝구나
 에여 새타령이 멀리서 부럽네
 우리 엄마 ○○○로 날 낳던가
 글공부나 못할망정
 ○○공부나 하지 말지
 하다 못해 달을 낳게 만들고
 모진 것도 세월인데
 추자 바닥이 웬말이나
 B : 어허야 상사디요
 A : 어허야 상사디요

(A : 김명희, 남 · 43세, B : 고광춘, 남 · 34세)

Ⅲ. 타 령

1. 시집살이 신세타령

원님아들 원석이가
 과거 간다고 없을 때
 입힌다네 입힌다네
 범죄를 입힌다네
 나 자는 방에
 들어가서
 아홉쪽 비단치매
 한쪽 뜯어서 송낙하고
 남은 남은 장삼 적고
 ○○ 뜯어서 ○○○
 배 불러서 정설하고
 동네 불러서 하적하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산천초목 올라간다
 늙은 중은 잠을 자고
 젊은 중은 신을 삼고
 아그 중은 내다보고
 상견님 일어나고
 어따신 큰 각시가
 은증노를 하러
 은장도 드는 칼에
 님의 숯돌 싹싹 갈어
 한편으로 갖고 가서
 감태같은 질찬머리
 한모심을 트찌끄니
 이왕사 깎는 머리

이름이나 말고 깎세
 닭똥같은 이내 눈물
 요리 씻고 저리 씻고
 벌이동냥 떠난다네
 가끔상계 거느리고
 동냥을 나서보니
 한잔 등을 넘고 보니
 마복에 늘는 성부
 버선발로 뛰어 내려
 어따신 성부님이
 백옥같은 중을 보고
 이리 반가 하시는가
 어하 중아 말들여라
 니랑내랑 살거듬은
 조선 천하가 내쌀이다
 내사 좋네 내사 좋네
 중의 보리밥도 내사 좋네
 어하 중아 말들여라
 니랑 내랑 살거듬은
 아들 아기도 ○○○○
 딸 아이도 ○○○○
 니가 병이 나서 죽게 되든
 아들이 약 대리고
 딸아기는 밀 딸리고
 나는 앉아서 머리빚고
 니가 영어 죽어짐은

설운 중생 유대군에
 너널이 넘자 넘어다가
 명당 잡어서 물어주마
 내사 좋네 내사 좋네
 증의 장작불의 구덤도 내사 좋네
 마구리동 많이 들어
 집에 와서 병이 났네
 원님아들 원석이가
 병이 나서 죽게 되니

산거중은 문안 간다
 원님아들 원석이가
 병이나서 죽게 됨은
 산거중도 만다는가
 아버지도 말씀말고
 어머니도 말씀마오
 마막같이 아파블고
 몸의 병은 질어가오

(서대엽, 여·77세)

2. 시집살이 신세타령

태연 태연 박태연아
 우리 태연 안 오던가
 자네 태연 오테만은
 칠성판에 실려오테
 아이고 가슴 내 가슴아
 낭군에 지친 가슴이나
 도끼에 다친 가슴이나
 한잔등을 넘어가니

울음소리가 절로 나고
 한잔등을 넘어가니
 상여소리가 진동하네
 저그 가는 저 상여야
 저그 조깐 밀쳐가라
 속적삼을 훨훨 벗어
 상여 우에다 걸쳐놓고
 이내 땀내 말고 가오

(김매봉, 여·79세)

3. 꽃아 꽃아

콩공 꽃아
 초가삼간
 생길 꽃아
 대월이라 ○○길래
 너네 손을 안꿨더니

강남 대별서
 내려 오는 손님
 너네 꽃을 꺾어가네
 꽃도 꽃도 많지만은
 너네 꽃을 꺾어가네

(오천례, 여·70세)

4. 또박네아

또박 또박
또박네아
너 뿔하러
울고 가나
우리 어메
젓먹으러 울고 가요
우리 어메 뿔등 곁에
합박꽃도 너울너울
접시꽃도 너울너울

그 꽃 한쌍 꺾어다가
우리 성제 노나 갖세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우리 성제 죽거들랑
죽산에도 영지 말고
뿔산에도 영지 말고
앞산에다 영저 주게
가지 한쌍 열거들랑
우리 성제 연 줄 알게

(윤몽십, 여·81세)



說 話

목 차

- | | |
|-------------------|------------------|
| 1. 도깨비와 싸운 이야기 | 8. 나무가 타 버린 이야기 |
| 2. 최영장군 귀신들린 이야기 | 9. 중국사신 물리친 김삿갓 |
| 3. 최영장군 영검 떠난 이야기 | 10. 바보 사위 |
| 4. 쇠주독 깨진 대 | 11. 죽은 부모 만난 효자 |
| 5. 고생 이야기 | 12. 삼정승 육판서 난 명당 |
| 6. 자식 이야기 | 13. 김삿갓 |
| 7. 지관에 관한 이야기 | |

1. 도깨비와 싸운 이야기

제 보 자 : 박봉남(남·61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433번지 박봉남씨 덕

술을 먹고 여기 예초리 있잖아요. 예초리하고 신산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도로가 밑으로 빠졌으니깐 그러는데 그 때 절벽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돌이 말굽, 이렇게 말이 발을 든 터같이 되어 있어요. 말굽터라고. 이런 정도의 돌이 있으믄 거기가 말굽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말이 딱 짚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근쯤 가게 생기는 술먹고 가니까 도채비가 나왔다. 그래 씨름을 했다. 이놈을 딱 눕혀가지고 꼭 허리끈으로 묶어가지고 왔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이것이 비짜루 몽둥이였었다.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어려서 보르는 뭐, 씨름을 했다 이거요. 씨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놈을 씨름 해가지고 딱 눕혔은게. 눕혀서 그래서 꼭 묶어서 소나무에다 묶어놓고 보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 자기 혈관에, 이 척대가 묶어진 것이 비짜루였었다는 거죠.

(조사자 : 그러면 그 도깨비하고 씨름해서, 어떻게 해서 이겼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래, 같이 인자 대항을 해서 그렇게 이겼죠.

(조사자 : 그 말굽터라는 데는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옛날 우리가 어려서 가보면 그 자리가 말굽같이 되어가지고 있어.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가면 도채비가 나왔고.

2. 최영장군 귀신들린 이야기

제 보 자 : 최철주(남·69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추자면 대서리 13번지 최철주씨 댁

지금부터 130년 쯤 전 일인데 그러니까 얼마되진 않은 때지. 그 사람이 쯤 바보였어. 쯤 부족한 요새말로 팔보였어. 그런 사람한테 장군님이 들려왔다 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 물 위로 걷고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 그 쯤 똑똑하고 한 그 유지들이 이 쯤 부족한 놈이 정신착란이 오지 않았나 해서 이런 감을 가졌던 모양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장군님이 올라났다 해 가지고는,

“누구 잡아온나 누구 잡아온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유지들이 모여서 그 당시

그 저기 지금 풍오옥이라 해서 저 가면은 효자문 비각이 하나 있어요. 비각 그 거기에 그 기재되어 있는 박명식이라고 있어. 박명래씨라고. 밝을 명(明), 올 래(來)자. 그 당시 젊은 분들 중에는 똑똑하셨던 모양이지. 그분이 장군님이 들려났던 바보 앞에서 여럿이 있는 데서 말이여. 그 진짜로 저 사람이 장군님이 들려났나 안 들렸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당시는 장군님 위패를 무슨 글을 새겨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나무로 해서 비단으로 싸서 이것이 장군님 위패다 하고 그렇게 모셨는데 그 명식이란 그 분이,

“장군님 위패를 무엇이라고 썼으면 쓰겠습니까?”

물었거든. 그러니 그 당시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여? 그 바보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장군님 안 들려났다고 하면 무슨 수로 답변할 만한 그런 말이 못 되거든. 장군님 위패를 무엇이라고 썼으면 쓰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지필묵을 갈아가지고 오래요.

“먹을 갈아라. 붓을 들어라. 명식이 붓을 들어라.”

하고 부르는 대로 쓰래요.

“조국도통사(祖國都統使) 최영대장지신(崔瑩大將之神)이라 이렇게 써라.”

이 말을 하니 아 그때야 그 동네 유지들이 깜짝 놀랬어. 장군님 들려난 그랬지. 지금 현재 그 장군님 위패 서 있어요.

3. 최영장군 영검 떠난 이야기

제 보 자 : 최철주(남·69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추자면 대서리 13번지 최철주씨 덕

근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칠·팔십년 즈 됐을까요.

이 추자에 상당히 한학에 깊으신 분 박달지씨라는 분 집에서 제를 모실 때였는데 그 양반 부인 꿈에 장군님이 말을 타고 졸병들을 거느리고 자기

가는 길이 바쁘니까 추자에서 육지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물을 대고 나가셨다 그러거든요, 당에서. 그러한 후로는 영점이 없다고.

(조사자 : 그래도 지금도 영점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를 잘 모시지 않습니까?)

아, 제는 잘 모셔드리지. 지금이나 그때나 제는 똑같이 모시지.

4. 쇠주독 깨진 데

제 보 자 : 이강설 (남, 5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추자면 추자국민학교 횡간분교

옛날 사투리로 쇠주독 깨진 데라는 지명이 있어요. 소주, 옛날은 그 소주가 댕병으로 안 나오고 독이 있었어요. 질그릇으로 이만한, 둥그렇게 되서 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주를 쇠주라하데요. 그래 쇠주독 깨진 데라고 그 지명을 받아서. 거기를 가보니까는 그 지형이 상당히 사람이 통과하는 데 난지역이라. 또 그런 데다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사람이 서서 걸면 이마가 다치게끔 이렇게 큰 돌맹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은 반드시 짚을 딱하고 이렇게 가야 그걸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쇠주독이 깨진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거기 뭐 이고 가다가 자기도 그걸 맞춰서 조금 앉아서 간다는 것이 머리의 자기 그 부피를 몰라가지고 탁 부딪혀서 떨어져버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것만 떨어진 것이라. 그래서 아마 거기서 쇠주독 깨졌다는데. 거기는 뭐냐하면 갈 때마다 사람이 가고 오고 통과 심해서 옆져서 다녀야 합니다.

5. 고생 이야기

제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 댁

한 놈이 대체 어떤 것 보고 고생이냐고 하나. 고생 구경하러 갔거든. 한참 가다가 날이 저물고 주막에 들렀단 말이여. 주막에 묵으려 하니께 주막쟁이 마누라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손님은 묵어갈 수 없습니다.”

“어쩐 일이요?”

그러니께,

“우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서 우리 남편은 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이제 곧 올 것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라믄 나 아무데서나 잠만 자고 갈랍니다. 인자 해가 다 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라믄 그렇게 하요.”

아, 장으로 시복할 명주 마포 사러 간 그 사람이 안 온다 그 말이요. 그러저럭 하던 것이 밤 중 열 두시가 넘어도 안 온다 그 말이여. 그러니께 이 주막 마누라가 손님보고 뭐라 하는고 하니,

“우리 바깥 분이 열 두시가 넘어도 안 오니 내가 좀 나가 봐야 쓰겠소. 나 따라서 우리 영감 마중을 갈려오, 여기서 집을 지킬라우.”

그러거든.

“집을 지킬라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 시신이 여기에 있으니 같이 집을 지키시오.”

어떻게 해야 할 지. 따라가자니 호랑이가 물고 야단인데. 그러니께 할 수 없이

“따라 가는 게 낫겠소.”

그러거든. 송장 혼자 놔 두고 이제 둘이 화가 있어. 등(燈)이 없으니까. 화에다가 인자 하난 들고 하난 불 피워 가지고 길가에서 신작로로 찾아 나선 단 말이여. 한 50리 가니께 호랑이가 저그 신랑을 잡아갖고 등거리를 뜯어먹고 있던 말이여. 그라니께 급하니께 마포 같은 것, 명주 같은 것 사온 게 한 쪽 구석에 널려져 있고 그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가 먹고 있드라 그 말이여. 그라니까 그게 어떻게 될 거요. 대각대각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디. 그 여자가 그 햇불을 들이대며,

“아나 호랭아 나도 잡아 먹어라.”

햇불을 들이대니께 호랑이가 물러난다 그 말이여. 물러나니께 그 옆에 가서 날을 새야지. 날이 새면 어차피 호랭이는 도망갈 거니께. 신작로 사람이 왔다 갔다, 포수도 왔다갔다 할 것임께. 날이 안 샌단 말이여. 화가, 그 화가 다 타서 다시 다른 화를 인자 또 잡고 있던 말이여. 그 화가 다 타서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집에 가서 그 마루 밑에 화를 가지고 올라우, 이 화를 가지고 여기서 지키고 있을라우.”

화를 가지고 집으로 가자니 송장이 있어서 무섭고 햇불을 잡고 지키고 있을라니 호랭이가 겁나서 안 무서울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호랭이가 무섭지 죽은 사람은 관참을 거라고, 마음이. 그래

“내가 화를 가지러 가야겠다” 고.

그래 인자 주막에 왔다고. 와서 인자 마루 밑을 뒤지는데 삶이 있더구만. 삶이 싹하고 팔짝 뛰어 깜짝 놀라 자빠지고. 인자 화를 가지고, 세 개, 문을 살짝 열었더니 송장이 거꾸로 서 있더구만. 그래가지고 그 여자 있는데 와서 보니께 화가 다 타고 손목이 타고 있드라 그거여. 그래 화를 바꿔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어 사람이 한 명, 두 명 오고 포수들도 오고 그러니 호랭이가 올라가드라고. 그라니께 그 마포하고 해서 싹 그 시체까지 여자가 업고 즈그 집까지 왔단 말이여.

6. 자식 이야기

제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 대

한 김판서가 판서에 이제 벼슬길에 섰으니께 잘 사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요. 그 동네 백정놈이 아들이 여섯이 됐단 말이요. 이 김판서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께 하루는 백정놈 불러가지고, 백정놈은 양반이 불러가니까 막 벌벌 떨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내 말 좀 꼭 들어줄랑가.”

“뭘 말씀이신지요.”

“자네는 아들이 여섯이여. 나는 하나도 없어. 이번에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그 낳은 그 놈을 나를 주면 어찌하겠는가.”

“천만에, 그러라우.”

“그러면 언제 순산을 하겠는가.”

“내일 할 것이요.”

그래 인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단 말이여. 애기를 낳거든 것물지 말고 그냥 갖고 오라고. 아 그라고 있으니께 애기를 갖고 왔거든. 애기를 목욕시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쌀을 입으로 씹어서 그것이 땀이여. 애기가 인자 이제는 차차 커서 이놈이 열 한 살이여. 서당에 땡기는데, 하루는 서당에서 오는데 백정놈끼리 사는 데가 있어. 백정놈이 죽었다고 아들들이 울며 야단이여. 아 그란디 이놈이 백정놈 옆을 지날려 하는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즈그 집에 와서 즈그 아버지보고 하는 말이,

“아 백정놈 죽었다고 합니다.”

“오냐, 백정놈 죽었다.”

“아 그란디 어째 백정놈 죽었는디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냐?”
고.

“애 재수없어 난 것이다.”

그래서 이 놈도 인자 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마누라 얻고 해 갖고 잘 산단
말이여. 김판서가 딱 죽었다단 말이여. 김판서가 죽어 장사를 해. 김판서 그
기일에 인자 흥판서가 김판서하고 아주 절친한 친군의 그 흥판서가

“오늘이 김판서 제삿날이니 위문을 가야 쓰겠다.”

가니께 해가 거지 반 저서 저녁되 지낸다고 모여 있는데 김판서가 나오거
든.

“아니 오늘이 자네 제일인데 어쩐 일인가.”

“친구 이보게, 이런 서러운 일이 어디가 있는가.”

“뭔 일이 있는가.”

“아 백정놈이 저 췌상 안에 앉아갖고 있네. 내 아들이지 네 아들이냐.
얼른 나가거라.”

그래 가지고는 자기 차고 다니는 고름에 칼이 있어. 흥판서에게 주며

“자네가 가서 우리 애에게 말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 칼을 끌러 주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드라고.”

“아 그렇게 하소.”

그래가지고 즈그 아버지 손님 왔다고 사랑에다 모시는데 인자 제사 다 파제
한 다음에 말을 했지.

“이거 어찌면 쓰겠는가. 자네가 나를 정 믿지 않으면 이 칼도 자네 아버지
가 쓰던 칼 아닌가.”

하고 그 칼을 보여 줬다구, 증거로. 벼락치기로 그 뒷날 다시 제사를 해
넘겼어.

7. 지관에 관한 이야기

제 보 자 : 최봉용 (남 · 6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7일

조사장소 : 추자면 영흥리 365번지 최봉용씨 덕

옛날에 추자도에 지관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지관에게 가서 상량날을 받는다. 어떻게 지관이 받아줬는가 하면,

“어느 때고 말타고 문 앞에 들어올 때 상량을 해라.”

시(時)도 모르고 누가 말타고 들어올 거여. 그란디 그 옆 이웃집 사람이 냇두리를 너무 절민하게 하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앉아서 끌고 다닐 조그만 말을 하나 만들었어. 이웃집에서 상량을 하니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를 시켜서 말을 끄스라고 해서 문으로 들어온 단 말이여. 주인이 아 이때다 하고 상량을 준비시켰어. 그란디 시가 문제여. 옛날에는 병거지 쓴 사람이 있으믄 시를 받아줬거든. 병거지 쓴 사람이 이 섬에 어디 있겠어. 병거지는 구경조차 못하지. 도대체

“어느 시간에 병거지 쓴 사람이 여길 지나갈꼬.”

하고 관심을 갖고 보는다 12시가 되니까 국술은 국술인데 술뚜껑을 딱 덮은 걸 보니 꼭 병거지 쓴 것 같애. 그래서,

“아 저것이 병거지구나.”

하고 하관을 했다는 그런 고담이 있어요.

8. 나무가 타 버린 이야기

제 보 자 : 박복진(남·61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7일

조사장소 : 추자면 영흥리 박복진씨 댁

상·하추자라고 하느디 옛날에 나무가 참 울창했어요. 누가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난 생이라. 태풍을 만났께 추자로 들었어. 사람이 아무도 안사는디 태풍이 너무 여러날 붕께 말이 굼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말을 다 폼는디 나중에 일자가 좋아져서는 말을 찾아보니 하나 부족하드래요. 그랑께 막 섬에 불을 질렀대요. 불을 질러놓고,

“이왕에 우리가 말을 못 찾을 바에는 어디서 죽은 지나 알자.”

고 불을 질렀던 모양이지. 그래 불을 딱 질러놓고 보니까 저 남생이 동굴이라고 남작한 화구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곳에서 말의 피뎀이 감겨져서 말이 하나 걸어나오드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울창하던 나무가 다 타버렸어.

9. 중국사신 물리친 김삿갓

제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 댁

김삿갓이, 중국서 한국으로 사신들을 보내서 한국 구식(舊式)에는 한국가 글이 그렇다고 하니께, 한국가 문장(文章)이 많다고 하니께 한국으로 사신들을 보내서,

“글이 얼마나 좋은가 알아 보고 온나.”

보내었는데, 그 쪽에는 대동강을¹⁾ 건너야 한국 오게 생겼거든. 지금은 철로 다리를 놔시니까 하지마는, 그 적에는 다리는 없으니까, 나룻배로 건너와야 하는데. 그리 할 적이 김삿갓이 한국서, '중국서 사신들이 이렇게 온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의논을 허거든.

그렇게, 김삿갓이 있다가,

“내가 사공, 나룻배 사공 내가 갈란다.”

고, 김삿갓이 눈이 한나가 새 까먹어서 눈이 외꾸쟁이여. 눈이 외꾸쟁이. 눈 한나가 새 까먹었어. 게 김삿갓이 사신들이 다섯이가 오거든. 딱 실코, 이자 게 얼른 배가 올 것도 끈득끈득 온단 말야.

한 놈이, 사신 하나가 김삿갓을 톡 보더니,

“조탁사공목(鳥啄槎工目)이라.”

허거든. 좃일(쫓을) 탁짜, 새 조짜. 새가 사름눈을 좃았구나 하는 것이거든. “조탁사공목이라.” 김삿갓이 고만히 생각허되 댓구를 해줘야 할 거인디, 어떻게 할꼬. 이리 뱅뱅 좃을 때 혼나가 코가 한편으로 비뚤어졌어.

“풍취흥변비(風吹橫便鼻)라.”

바람이 부니 코가 한편으로 비껴 섰다 해서 “풍취흥비립(風吹橫鼻立)이라.”²⁾ 바람 풍, 불 취, 빗길 흥.³⁾ 사공은 이 놈을 고만히 붓게 눈 한나 새 까먹은 놈이 글을 짓고 허는 걸 보니까 참말로 이거 뭐 말할 수가 없거든.

그러저럭 간 것이 해가 다 뵈다 말야. 해가 물 속으로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놈이 또 사신 한나가 있다가 뭐이라고 허는고 허니,

“일락(日落)하니 무(無)툼병이라.”

해가 물 속에 떨어져도 툼병소리가 없다 그말이여. [웃음] 무툼병이라. 툼병소리가 없다. [웃음] 아이 그러이 사공놈이 고만이, 허허 어찌 내가 함께 우스운가, 모두(조사자들이 웃는 것을 보고 한 말). [웃음] 그놈을 댓구를 해야 할 것인디 어찌 할꼬하고 생각했다.

김삿갓이 있다가,

1) 大同江, 압록강을 잘못 말한 것이다.

2) 처음에는 “풍취흥변비(風吹橫便鼻)라” 했다가 여기서 이처럼 바꾸어 말했다.

3) '빗길 흥'이라 하나 '橫'자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화락(花落)하니 무(無)뚝딱이라.”

꽃은 더우(더위)에 떨어져도 뚝딱소리가 없다, 그말이야. [웃음] 꽃 떨어진 데 먼 소리가 날 것이야. [웃음] 그랑께, 고만이 있다가, 가만이 생각해 보니, ‘한국으로 갔다가 우리가 큰 일을 볼 게니 배를 돌려’ 나룻배를 돌려 돌아갔다. (조사자 : 게 도망간 거군요.) ‘눈 하나 새 까먹은 사공놈이 저렇게 글이 좋은디 우리가 가서 뭐 할 것이냐.’ 이라고, 그라고 갔지.

10. 바보 사위

제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택

(조사자 : 멍청한 사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허허. 내가 이야기 한 자리허께.

한 놈이 김정승의 집으로 장개를 들게 생겼어. 벼슬길에 안 든 사람이. 그란디, 김정승 딸이 고만이 즈그 신랑, 남편될 사람을 사주를 알아 보니까,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거야. (조사자 : 아, 멍청이구나예) 멍청이야. 이것 참 큰일 났구나. 그란디, 그런 구식(舊式)에 양반에 집은 낙혼(約婚)이 되면 택일을 해서 결혼을 한단 말야. 게 큰애기가 아주 낙심을 허고 이라고 있는디 이자, 신랑이 찾아온단 말야. 신랑이 온단 말야. 게 배례청에 배례하고는 이자 방안으로 들어 가는데, 즈그 처남네도 서이가 있는디, 처남네가 서인디.

즈그 매형이 무식이라는 말을 듣고는,

‘에이, 처남이 무식허다니까, 놀려 먹을 수뻐이 없다.’

속으로. 그라고 인자, 한 데다 술상을 놓고. 이 신부된 큰애기는 즈그 신랑될 사람이 멍렁구리란 말 듣고 웃을 던진단 말야.

지네 작은 처남이 있다가 하는 말이 뭐이라 하는고 하면은,

“우리 술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인자 새로 온 매형이 있으니까 우리 글 한 귀씩 짓자.”

고. 성제가 알고 짜고 한 것이지라.

“그라자.”

고. 허니께, 이자 신랑도.

“그라자.”

고. 즈그 처님이 막둥이 처님이 있다가 허는 말이.

“그나저나 우리는 다 동생간 덜이고, 매형은 형이니까, 우리 큰누나를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매형이 먼임(먼저) 글을 내야 우리가 하겠다.”

고.

“아, 그라지야.”

지 술상애가 무엇이 있는고 허니, 서화 한 사발, 낙지 한 사발, 대우 한나. 술 빚어 먹을 대우, 술잔보고 대우라고 그러. 게 지기 작은 처남보고 어서 글을 씌라고,

“내가 부를 것이니까, 어서 글을 씌라.”

고.

“서화낙지한사발이요.”〔웃음〕

서화 낙지가, 서화도 먹는 반찬이요, 낙지도 먹는 반찬이거든. 서화라고 부엌에서 씌는 꿀보고 서화라고 그러.

“서화낙지한사발이요.”

방애를 썩 돌아 보니께, 요강도 있고, 대우있고, 베게도 있고, 이불도 있고,

“요강대우베갯니라.”〔웃음〕

저 큰애기들이 웃고 야단이네(조사자들이 웃는 것을 보고 하는 말). 즈그 처님이 글을 받아 씌거든. 고만이 보니까, 멍멍이라 췌는데 이런 문쟁(文章)이 엇거든.

허고 이자 그날 저녁은 넘어서. 각시가 이자 다 듣고 있으니까니 좋다고. 지그 아버지가 있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혹 귀경 나가자고 놀러 나가자고 할 적에, 좁은 길로 가자고 하던지 어치게 하자고 허면, 군자(君子)는 대로행(大路行)이라고. 군자는 큰 길로 가는

거지 작은 길로는 안간다고. 군자(君子)는 대로행(大路行)이라고 그렇게 해라.”

“예, 걱정 마세요.”

계 집의 처남네가 놀러 가자고 허니까니 한쪽으로 가니 즈그 아버지가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매일 일러 노니까,

“군자는 대조갱이라.”

고 이러거든. 대조각이라고. 하하. [웃음]

11. 죽은 부모 만난 효자

제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 덕

한 효자가 아릿널 효자가 있고, 웃널 효자가 있어. (조사자 : 둘이네예?) 웃널도 효자가 한나가 있고, 아릿널도 효자가 한나가 있다말야. 그런데, 아릿널 효자는 죽은 아비를 만는다(만난다) 그러거든, 웃널 효자가 들으니까. 죽은 아버지를 어떻게 만느냐. 그런데, 풍편에 듣기를 아릿널 효자는 지그 아버지를 만는다. 지그 아버지가 들어오면 만는다.

“에이 내가 아릿널 효자안티 한번 가봐야 겠다.”

아릿널 효자집이 들렀다.

“나도 내일이 우리 아버지 제일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볼 수백이 없다.”

저그 아버지 제일이라는 날인디 아뭇것도 안한다 그말이여. (조사자 : 제물도 안하고?) 준비를 아무 것도 안해. 이 오늘이 저그 아버지 제일이라고 하는디, 이 제사지내는 것같지 않으니, 뿔을 하나 이겨여. 해가 다 저간단 말야. 해가 다 거진 저가니까니. 이 놈이 저그 머슴을 불러.

머슴을 부르다니,

“마당너구리 저 놈 나오기 전에 잡아서 다 삶아 봐라.”

마당너구리란 놈, 개. (조사자 : 아, 마당너구리.)

“예.”

하니까 저 건네서 이 건네를 노도로 건너와야 오게 생겼던 모냥이야. (조사자 : 뭘로 건너요?) 노도, 노도. 이렇게 지금 말로 허면, 저 건네하고 물이 안 있다고. 물이 나가면 노도가 나고, 저가 물리고(마르고), 물이 들어 오니까 쟁긴게(잠기니) 못온다 이거여. 그 노도가 있어.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있어 가지고 물이 흘러게 된 건디. 하고 있으니께, 이쪽에서 노인네가 두 분이 건네 온다말야. 즈그 아버지하고, 즈그 아버지 친구하고 둘이 와. 그러면 인자. 그란디, 즈그 친구, 즈그 아버지 친구는 상을 잘 챙겨놓고, 즈그 아버지는 더 없어서 마루에다가 안킨다 말야. 안기니께, 그 개를 큰 통에다가 퍼가지고, 칼하고 고구마하고 해서는 갖다 놓는다 말야.

웃녕 효자가 보니께, ‘즈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를 모셔 오긴 온디, 마당너구리를 잡아서 즈그 아버지를 대접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라고는, 마래다가 통 갖다가 툅 놓고는 었더갖고 있으니께,

“아 다 잘 묵었다. 나 잔다.”

개다릴 하나 갖고 간단 말야.

“아, 아버지 뭐한다고 그 개다릴.”

“어허, 새로 데불고 온 친구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해야 안 썰 것이냐. 친구하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고.

“그러시죠.”

라고. 가져갖고 노도까지 모셔다 주마고.

웃녕 효자가,

“개 참 이상하기는 이상하다. 나도 효자말 들어도 부모를 못 만났는디, 아랫넛 효자는 저렇게 부모를 만나는 것이냐?”

그란디. 그러고 이자 날이 새니께, 아 뜬금없이 동네서 뭐 먹을 떡 해갖고 온 놈, 밥 해갖고 온 놈, 전부다 동네 잔칫 하듯 하거든. 즈그는 아무 것도 안 허고.

그걸 보고는,

“참 나는 멍청한 효자다. 효자는 니가 효자구나.”

(조사자 : 그건 효자도 아니네예. 불효자네예.) 하하. 죽은 부모를 만나 본 사람이 어디 있건디.

12. 삼정승 육판서 난 명당

계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 덕

이승우, 박승우가 있었어. 거 옛날 얘기여. 이승우하고 박승우가 있었는데, 이승우하고 박승우하고 같이 서당을 땡기는데, 서재를 땡기는데. 직, 말하자면 제주서 왔다고 하니께(조사자들이 제주에서 왔다는 말), 제주 신촌서 조천으로 넘어 오라, 함덕서 제주시로 글 배우러 땡겼다 그말이야. 그 둘이까, 이승우하고 박승우가. 그리 땡기는데, 이승우, 박승우는 저녁의 저녁밥을 먹고 일찍 학교 서당에를 가고, 이승우는 저녁을 늦게 먹고 늦게 학교를 늦게 간다 말야. 가는 도중에, 뜬금없는 그 시하고 별도하고 두 사이가 집이 하나 생겼더라고. 그 집의가 축불이 써져 갖고. 저저 이상하다. 저 집이 없는데, 집이 있구나 하고 말타고 가갖고. 가보니까 이쁜 처녀 하나가 주역(周易)이란 글을 읽고 있었어. 있더니, 주역. 주역이라고 알지. 주역 서문을 놓고 읽고 있었어. 주역 서문이란 것은 그전에 이 왜정때, 일본놈덜이 왜정때 우리 추자에 있는 그 책을 다 불살라 부렸어. 주역 서문, 주역 서문을 삼독을 하면은 둔갑을 한다든 거여, 사랴이. 게 거기서 그 큰얘기하고 그 집에 있는 큰얘기하고 둘이 인자 글을 읽다가는 그러이까 자자고 그라거든. 잠 자다가 가이께 잠은 자자고 하되 혈끈 대념으로 바싹 졸라맸다 말야, 이승우가. 게 둘이 나란히 누웠는데 붉은 구슬 한나하고, 푸른 구슬 한나하고 둘을 갖고는, 한나

는 자기입에 열다가 이승우 입에다 열다가 이렇게 하고 놀았다 말야. 이승우가 생각하기를, '어째 둘이 한번에 내입에다 들어오면, 도망칠 수 있다.' 그리 생각하고, 허디 무엇인가 하다가, 구슬 둘이 자기입으로 들어오거든. 그러이 구슬을 물고 도망치고 나와 부렸다. 나와가 길가에 떡 나오니께, 짐은 없어지고 크단 백여시. 이제는 호랭이가 둔갑을 허면 여시가 되어가지고, 그 여시가 사람을 흘릴라고 그럴 수가 있다고. 게 구실을 봤다가 그렇게 하고 올라가고. 처분을 그렇게 하고 서당에를 들어갔다 말야. 서당에를 들어가갖고 토재를 올라섰다가 글을 이제, 글을 소시에는 글을 읽는다 말야. 글을 이제, 저녁글을 읽는다. 그러든, 열한 시까지 글을 지금 시간으로 허른 열한 시까지 글을 읽다가는 열두 시되든 선생이 이제 책 덮고 잠자라고 그러지. 잠자라고. 그래 글을 읽다가 선생이 책 덮고 자라고 하니께, 잠을 잘라 하는데, 이 책 덮어놓고 토재를 넘어서 한라산을 건너다 보니 한라산이 어째 생겼는지 보인다 말야. 그 구슬 먹고 온 사람이. 어디는 어떻게 생기고, 어디는 어떻게 생기고, 어디서는 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전부 그렇게 인자 눈으로 본다 말야. 그래서는 그 서당을 글로 그냥 마쳐 뿌리고는 이승우가, 저 박승우가 거가 있으니께. 박승우가 산, 산 거시기는 이승우가 구실을 먹고 거시기한 등살에 지, 지리는, 산지리를 잘 알고, 택일하는디, 이 구식에, 지금은 그러지만, 제일 택일을 할지, 뭘 택일을 하는 디는 박승우가 잘했다 말야.

선생이 있다 하는 말이,

“아, 이 자식아. 너 뭘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예, 오다가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구실 두개를 입에다 열어 주길래, 튀미쳐 나와서 토재 신 신을려고 땅을 내려다 봤습니다. 신을 찾아 신을라고, 아 그 신이 한나는 저리 가불고 한나는 이리 가 있어 선생님을 디릴라고 내가 그걸 입에다가 꼭 물고 한디, 토재를 올라서니까니 입으로 넘어가분다 그말이야. 하하하. 그래서 선생님을 몬 갖다 드렸습니다.”

하니께, 선생님 왓,

“그거 다 네 덕이여. 내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너 복이니까.”

그래 둘이 산 지리를 본다. 돌아 땀기면서 산 지리를 본다. 하로는 한 군데를 가서 산을 보니께, 이거 참말로 그짓말이여, 참말이 아니라(조사자 보고

하는 말). [웃음] 하, 이젠 구식말로 삼정승 육판서 날 재리가 있다 그말이여, 뫼자리가. 그 뻘뻘모른 째뫼이뫼인디, 요섯 사름덜 그짓말로 생각을 해. 째뫼이뫼인디. 삼정승 육판서. 정승이 먼뫼(먼저) 싯(셋)을 나서 뫼를 거다 씌면 서, 정승이 선이가(세 사람이) 나와갓고 그 자손이 판서나 판서가 여섯은 난다. 이런 자리가 있었다 말야. 한참 이라고 어떤 놈 한나 여기 뫼 썼으면 좋겠다고.

그라고, 둘이 돌아서니께 아, 억수로 비가 퍼붓는다 말여. 마을을 좇아야 할 건디 산중에서 마을을 얼른 찾을 수 없어. 게 찾아 내려온다고 내려온 것이 어느 집 한나가 있거든. 게 그 집을 딱 들어 갔다고. 들어가 보니께, 산중에서 혼자 저 혼자 솟을 구워서 불을 내가 팔아서 연명하는 그라고 사는 총각이 있다 그말이야. 적는가? (조사자 보고 하는 말) [웃음] 그 가이께, 띠로 집을 잇고 띠를 깔고 산다 그말이여. 억새를 깔고. 그래 사는디 이 거시기, 솟 구워 먹은 놈이, 뫼 아척 지어먹을 치뫼이 없는다. 지가 저 혼자 목을 치뫼이 뫼 인적 먹을 치뫼이 없는다. 뫼 아척 먹을 것은 뫼어야, 솟을 꺾아 풀아야 그날 연명을 할 거인디 뫼 아척 먹을 것을 이 손뫼네가 둘이 왔이니 혼자 먹다 둘을 어떻게 먹일 거냐고. 이런 걱정하고 있었다 그말이여. 그라자, 그나저나 이 손뫼네가 왔이니께, 뫼 아척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우선 척이라도 씌서 디려야 되겠다고. 죽을 쭈고 있는다, 쟁쟁이 중놈 한나가 아이 뫼를 흠치랭이 맞고 아이고 추워라하고 들어 오거든.

“아이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뫼는 이자 들고(계속) 온다 말야. 그나저나, 혼자 목을 양식을 죽을 씌가지고 둘이 목게 했는디, 서이 먹게 되었다 그말이야. 그랑께 그놈의 거 가지고 서이 목었어. 서이 목고는, 무엇으로 불을 썼는고 허니, 구식산이라 배차씨 지름. 배차, 배차씨 지름. 산에서 그런 그것을 짜가지고 지름을 내서 등잔불을 썌놓고 살았다 그말이야.

게 이자, 가 서이 앓아 그런저런 얘기 허다가 이승우가 그랬어.

“자네 부모 엇다 장사했는가?”

그랑께,

“예.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장사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함께,

“우리 집의가 빈한해가 빚을 못하고 분토를 해졌습니다.”

그라저든. 빈소에 갔다.

“그라픈 좋은 재리가 있으니 그리하세.”

하니께,

“고맙습니다.”

가고서 메를날 거그서 이제 박승우가 택일을 한다 그말이여. 거그서 인자 택일을 하는디, 팽토에 발복을 톡 시키니, 시키거든. 팽토라는 것은 찰린 뒤에야 팽토가 되는 거야. 빚을 묻고 그 맨 밑에다가 차려논 게 그 팽토야. 빚을 묻고 인자 그 밑에다가 인자 상을 차린 기 팽톤디.

깡깡이 중놈이 그 옆에다가 있다가,

“팽토에 발복시키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뭐 입 봉하고?”

이라거든.

“자리 개지에 발복을 시켜야 우리가 빚을 얻어 먹제. 팽토에 발복시키면 뭐 배고파서 일 못한다.”

고. 고만이 생각해 봉께, 박승우가 생각해 봉께, 그런 것 같거든. 그렇게 개지에 발복하기로 날을 딱 받아왔다.

그 밑에 동네에가 흥판서 집이 있었수다. 성은 흥, 흥판서가 흥판서 판서 벼슬을 허다가 벼슬을 폐직당해 가지고 서울서 그리. 그랑께 성안에는 서울이라 카고, 성밖엔 지끔 말로 성밖엔 시골이라. 이 흥판서 이까지 아들 한나백이 안낳는디, 자부까지 메누리까지 얻었다 말야. 메누리까지 얻었다, 흥판서 죽고, 흥판서 할멈 죽고, 할멈은 죽었지만, 메누리, 아덜이 죽어 붙거든. 아덜이 죽어본께 메누리 혼자 거 노복들하고 산단 말야. 부자랐어. 판서, 판서벼슬을 했으니까, 어디 돈 좀 많이 있었던가, 나왔던가 해서 논밭 사고 해서 부자로 살았어.

흥판서 메누리가 그날 밤에 잠을 자니께, 꿈에 선몽, 사램이 한나 오거든. 꿈에 사람 한나가 오더니 뭐라고 하는고 허이,

“내일 닭 두머리가 울른, 울른 꿇이 오든지 너를 찾아 올 것이다. 오는, 오는디 찾아 오는디는 그 사람 말을 꼭 들어야 하지, 안 들으면 네게 재미가 없다. 늑이 이롭지 못하다. 하니 나 시기는 대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한다.”

그라고, 사라진다 말여. 저물께 생각함께, ‘참, 이거 이상하구나. 천행으로 그직 구식에 거지가 원치 많아니께, 거지라도 찾아 오면, 사람이 오면 다행인디, 짐승이라도 오면 어떠냐 그말이여. [웃음] 짐생이 오면, 이 일을 어떻게 할꼬?’

별채에 산속에서 그 중놈이 있다가 하는 말이 뭐이라고 있냐 하면, 이 숲 귀먹은 놈을 깬다 말야. 깨니께 일어나서,

“너 흥판서집 얼른 가거라. 이 길로 흥판서집 얼른 가거라.”

“평민이 양반의 집을 어떻게 가느냐.”

고.

“아무말도 말고 다 시키는 대로 가거라고. 가쁜 환영을 할 것이다. 환영하든, 내일 썰 거시기를 전부다 준비해서 어서 가거라.”

고. 그라고 인자 보냈단 말야. 아이, 흥판서 메누리는 어찌 사람이 거지가 오면 썬디, 짐생이 오면 어짜카 근심을 허다가 뜬금없이 대문을 두드리거든. 저의집 제 몸종을 보고,

“누가 왔는지 가서 문을 열어 주라.”

고.

“생판 모른 사람이 왔다.”

고.

“어서 들어오라.”

고. 아니, 흥판서집 메누리가 양반의 메누리가 방으로 들어 오라고 카니, 매투 때릴 것이냐 아니 때릴 것이냐. 무슨께. 별벌 떨면서,

“아 살려 주시라.”

고.

“아, 걱정말고 들오라고. 아, 그라든 뉘 일이 이렇게 되었냐?”

묻는다 그말이야. 물으니께는,

“아 집의가 손님덜 세 분이 있는디 비 오는 날 날 새른 돌아가신 울 아버지 장사를 할라고 하는데 아뭇것도 없다. 쌀 한 말만 줍시오.”

“아, 그 걱정허지 말라. 따라 오시오.”

아, 그라고 기냥 나가서는 쌀 닷말을 준다 그말이야. 쌀 닷 말을 찰리에 담아 주고 무어 그런 거 저런 거 개기지에 펜토, 개기지에다가 펜토 뒷을 그시기

해서 그시기 뺏을 펜토에 와서 보라고, 개기지에 발복을 시켜야 우리가 묵고 잘 묵고 갈 것 아니냐고. 이자 그라고 장사를 한다 말야. 장사를 하고 나이께 이, 흥판서 메뉴리가 저그 머슴께다가 질머지기를 걸게 해서 질머지고, 좋은 꽃쟁이 몇넛 갖고 해서 올라 온다. 오라서는 인자, 그 서이가 장사하고 허는 데, 인자 전반 다 대접하고 그렇게 잘 해두고,

“가겠다.”

고, 언제 만나자는 말도 없이 딱 가겠다고. 흥판서 메뉴리도, 아, 숫쟁이가 고만이 생각해 봉께, 이것 참. 그라고 있는디, 해가 다 뻘겨든. 해가 다 되노 니께는 흥판서 메뉴리가 입을 옷 전반 다 들쳐 입고, 꽃은 꽃쟁니 들쳐 이고, 요새 같으면 콜라 두 세병 사 들쳐 이고, 올라 온다 말야. 숫쟁이안티 올라서는, 재리를 딱 깔고 이불 딱 퍼놓고,

“이제 당신하고 나허고 동거생활 할 것이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별이가 없는데?”

“걱정 말라.”

고. 아 그래서, 흥판서 메뉴리 그 사램이 숫장사, 숫쟁이안티로 시집을 가 갖고 내가,

“숫장이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래갖고 내가 목간시키고 옷 다 해서 입히고 둘이 살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아서 삼정승이 났다고. 그 아들 삼형제가 그것도 낳아갖고 전부 판서가 됐다고 그리했다고.

13. 김삿갓

제 보 자 : 이강택(남·84세)

조사일자 : 199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추자면 신양1리 19번지 이강택씨 댁

이전에 김셋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셋갓, 김셋갓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헐라고, 글이 좋아서 벼슬을 헐라고 해도 은이 안맞았던지 어쨌던지 벼슬을 못하고 말았어. 그래서 한량으로만 생활했어. 그렇게 팔도강산 한량으로 댕기고 그란디, 김셋갓이 그렇게 글이 좋고, 아, 자식이 아들도 대여섯 낳다 그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과거 어치케 벼슬해 불라고 저 밧을 다 팔아 먹고 집백이 안 남았다. 즈그 마누라가 반불평 늘어서.

한번은,

“에이 빌어먹을, 평양 귀경이나 갈 수백인 없다.”

게 평양을 들어 갔다 말야. 평양을 들어 가서는 월선이라는 기생이 있었어. 월선이. 평양기생 월선이라는 기생. 월선이라는 기생이 아주 평양서 일등 부자고 기생이여. 이 기생을 한번 만났으면 씨겠는디, 만날 수가 없단 말야. 게서 단시를 한나를 갈랐어. 단시란 건 통시. 그것 보고 이 구식에 단시라고 그랬어. 담시를 하나 갈라서는 들켜 쥐고. 송어말야. 이젠 송어, 지금도 송어 있지. 장에 가서 지게하나 히고 오지발하고 한나 딱 샀단 말야. 캐기잡는 발이 있었어, 구식에. 캐기잡는 발의다가 송어 세 마리를 샀는디. 한 마리에 얼마씩 줬냐허면, 그전에 엽전 세 닢씩을 주고 샀어. 엽전 시절에 세 닢씩을 주고 송어 세 마리, 아흠 닢을 주고 세 마리를 샀다 말야, 엽전하고. 아, 추수 때가 되었던가. 가을에 나락은 모두 비여서 그자, 집으로 담아들인다 그말이여. 머슴들이 이자, 여럿이 이자 나락을 질머지고 나락을 지게 되었는데. 꼭 평양기생의 월선이집 사는 터단 올라갔다, 내려갔다함시롱,

“송어삼시요, 송어삼시요.”

그라이게 그 기생이 있다가 한 마리 사다 머슴들, 일꾼들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나니까니,

“송어 한 마리 사 갖고 온나. 송어 언마인가 물어보고 온나.”

아 즈그 몸종이 나가기를,

“송어 한 마리 얼마요?”

그라이게,

“한돈 오뿐이요.”

그라거든. 서푼 주고 샀는 걸 한돈 오뿐이라고 하니 놀래지 안 놀랄 수가 없다.

“에, 벼 한돈 치면 열마리도 사고 스무마리도 사고 헐 돈인데, 한 마리에 한돈 오픈이란 게 된 소리냐. 아이고 비싸서 못 사겠소.”

하고 도로 가 버렸다.

그러나 그 꼭 거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시롱.

“승어사시요, 승어사시요.”

그라는데 해가 다 졌다 이말이야. 해가 다 졌으이께는 이제, 거그다가 이자 승어집을 이자 오지발을 딱 받혀놓고는

“하룻밤을 집문간의서 묵어 갈란다.”

고 그러걸랑.

“안한다.”

고. 사정사정하니께는 평양기생이,

“대문간 그 쓰레기발에가 하룻밤 자고 가라.”

고. 그라이 쓰레기발에 가 가서 이자 드러 누웠는데, 칠월 보름달, 칠월 보름달, 달이 멀가이 이렇게 있는데.

머슴들이 낮엔 다 나가서 일하고, 밤에 인자 아, 한잔씩 묵고 다 잠을 잔다 그 말이야. 마당 가운데 나가면다가 그 적이는 다 노적이라고 하지. 나락을 이렇게 쌓올린 것. 게서 나락을 뺨 돌려서 덮어놨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딱 놉졌다 그말이야. 게 거를 올라갔다. 올라가서는 기중 봉데기를 잡아 나락을 견여 치우고 거길 턱 들어 앉았다. 봉데기가 턱 들어 앉아서는, 고만이 있어 봉게, 아 기생이 뉘 글을 읊은디, 뉘 글을 읊은디 모르겠거든. 글을 읊어 놓고, 그 자기 잠자는 문 속에다 써 놓고 가는데 뉘잇고. 얼른 내리갔지. 얼른 내리가서는, 그 글을 띄 보이께는,

“장침(長枕)은 수여동(誰與同)고?”

그래 왔구만. 장침은 수여동고. 이 진 장짜, 베개 침짜. 진 진 베개를 누구로 더불어 함께 할꼬. 장침은 수여동고. 해가 하니께, 글을 읽곡 문쟁이곡 이렇게 현 놈이라, 거그서 얼른 씨기를,

“객침(客枕)은 일우객(一宇角)이라.”

베개 같이할 사람은 한 모퉁이가 있다고. 또 그라고 어찌 어찌 그 글하고 그 글이 딱 맞앗부렀다. 장침은 수여동고 하니께는 객침은 일우객이라. 진 베개를 누구로 더불어 함께 할꼬 허니께는, 같이 할 그 베개 같이 할 사람은

한 모퉁이가 있다. 그라고는, 또 올라가 부렀다 그거여. 올라가서 딱 들어 앉고 있었다 그말이야. 아, 월선이가 장침은 수여동고 하고 글을 안짜을 지어 놓고는 빗짜을 이을 생각을 하고 와서 보니께는 누가 빗짜을 써 냐거든. 객침은 일우객이라고 또 썼어. 이것 참, 이상한 일이다.

그라이께네,

“허창추야월(虛窓秋夜月)이요.”

허고 또 써냈어. 이 달이, 이렇게 붉으니께 인자 태평스럽게 처졌다 그말이야. 얼른 내려가서 내려가서 보이께네. 그렇게 써 냐거든. 보니께는,

“풍취담품이라.”

이 글이 뵈뵈에 길은 거 한가지라. 이렇게 써냈다. 써놓고는 또 풀떡 올라갔다. 아, 월선이 또 와서 보이께, 또 그렇게 써냈거든. 그란디, 이놈이 이자 거기서 담쇠를 부르기를, 장침은 수여동고 객침은 일우객이라고 담쇠 부르고 앉았다 그말이야. 머슴들이 잠들 죄다 췌다 그말이야. 노복이고 뭐이고 그 집 식구 다 췌어.

“이 담쇠 소리가 어디서 나는고? 짐승이던지, 사람이든지 손도 대지 말고 가 모셔온나.”

그라고는 보냈다 말야. 아, 사람은 천지를 다 돌아보니 어디 있어야지. 그 소리 나오니께 이제 담소도 불어야지, 안 불고 감춰불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되 찾지 못하고 하다못해,

“가 자거라.”

고. 잠을 잘라고 막 눈부치니, 담쇠 소리가 막 난다 말야. 그래서 결국은 하도 소리 나니께, 이놈들이 욕을 한창 하다가는,

“다 잠자라.”

하고는, 상머심, 상 머심이 달이 이려고 흰하이께, 토재애가 이렇게 드러 누웠다 그 말이야. 드러 뵈시니께, 노적들을 나람 쌓아놓은 뽕데기 보니께, 무엇이 들었거든. 아 거그를 가보니까. 사다리로 올라가서는 잡아 땡기니께 밑에 잡혀있는 놈이 나오며 절룩 절룩 절룩. 나온 거 보니께 낮에 승어장수라 그말이야. 하하. 델꼬 내려와서는 기생보고, 그말을 허니께, 기생이 이자 이 절 데려다가는, 참 목간시켜서 자기가 자기맘에 맞은 신랑을 만나른 줄 것으로 하고, 옷 한벌을 전부 해냈던 문양이라. 잘 입기고 한량이 한량이지. 시골

놈은 시골놈이고, 이 몰골이 암전하고 한량이며. 결혼식을 인자 결혼식을 할려고 하는데, 이 평양 기생이 있다 하는 말이,

“내 생일잔치가 멀지 안했어. 이제 사, 오일이면 생일잔치를 할 것인데. 생일잔치에 내가 지은 글을 보답을 하고 답변을 하면 쓰겠다고. 누가 되든지 신랑을 멩글겠다.”

고.

“그라몬 그렇게 하라.”

고. 그리고 이자 편히 술에다 밥에다 고기 잘 해서 묵었다. 그래 그날부터 평양 한량들은 다 모였다. 모조리 집합했다. 그래갖고는 잔치를 벌이고 기생이 가운데 나서서 글을 읊는다 말야. 글을 읊으며 평양 한량놈들이 그 평양기생 하는 글을 다들 그 글을 다 밧짝을, 안짝을 그 기생이 내논다치른 밧짝을 채려야 할 거인디, 이 허춘보가⁴⁾ 밧짝을 다 지었다 말야. 게 이자 아주 산다 그말이야. 사는디, 아, 하루는 기생이라 뇌서 나라에 기생점고를 허는 데 안 갈 수가 없다 말야. 그래서 기생점고를 하러 간 뒤로, 허춘보가 농문을 열어 보니까, 이 논문서가 있고, 집문서조차 있고 원없이 있거든. 그 놈은 딱 끌고 싸갖고 한성으로 나라가비였어. 내라갖고는 즈가 각시하고 할멈하고, 각시하고 아들들 다섯이 하고 잘덜 살았다. 서울 삼각산에다가 집을 딱 지어놓고. 자기 손시 평양기생 화(畵)를 쳤어. 기생을 기렸어. 그래서는 문전으다가 들어오는 문전으다가 딱 걸어놓고는 아적마당(아침마다) 거그다가 밥을 찰려놓고 저그 화를 보고 제를 지내는다. 이 평양기생은 어느 때 만나든지 만나기만 하게 해 달라고 빌었거든. 평양기생은 가서 저 기생점고를 마쳐놓고 보니께는 그 춘보가 없거든. 어디 갔냐고 허니께, 여기 없다. 하루 지내도 안오지, 이를 지나도 안오지, 사흘 지내도 안오지. 이거 어딜로 갔길래. 아, 농문을 덜여다 보이께 집문서 밧문서 아뭇것도 없어. 저당권 설정을 딱 해부렸다 말여. 전당국에다, 저당권 설정을 해부렸다. 아, 일주일 기한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냈는디, 아 할 수 없이 앓게 됐다 그말이야. 허춘보를 찾을라고, 서울서부터 제주엘 내려왔다. 거짓말이지 이거. 제주 한라산을 풍다게부터 내려간다. 한라산 저 내리오른 한천이라고 현 데가 내리른 차근 차근 서울서 내리오

4) 여기서부터 김삿갓이 허춘보로 바뀌었다.

은 한천서 진도서 해남으로 차근 차근 더듬어 올라간다 그말이며. 차근 차근 올라가서 서울 삼각산을 올라 갔다 그말이며.

서울 삼각산을 올라갔는데, 식전 아침에 서울 삼각산 집을 한 집을 턱 들어가이께, 대문간에서 자기 사진, 요즘 같으면, 꼭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한 부인네가 정한수 떠 놓고 소원하기를,

“평양기생 월선이를 언제 만나든지 만나게 좀 해주시라.”

고. 이 소리를 들었다 그말이며. 보이께, 자기 사진이여. 들어갔다. 들어가서는 이 허춘보가 방에 있었다 그말이며.

“들오라.”

고. 들어갔다. 거그서 인자 대번 단도를 꺼내놓고,

“허춘보 당신을 만나면 대번 당신을 찔러 죽이고, 나가 죽을라고 각오하고 있는디, 여그 당신집을 와서 보니께, 차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당신 마누라 하는 것보고 할 수 없소.”

그라고는 단도 그걸 놓고 나와서는 그 연못 바닥에다 연못을 파놔서. 연못을 파놓고, 포도술을 띄워놓고. 허춘보는 금계 잘 되고.



<제보자 : 이강택 할아버지>

信 仰

목 차

- I. 개 관
- II. 공인종교
- III. 부락신앙
 - 1. 상추자(대서리, 영흥리)의 풍어제
 - 2. 하추자(예초리, 신양리, 묵리)의 풍어제
 - 3. 횡간도의 풍어제
- IV. 개인신앙

I. 개 관

추자도는 제주에서 서북방으로 28마일, 목포로부터는 동남방 58마일의 거리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추자에 대서리, 영흥리 등 2개리와 하추자에 예초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등 4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당신앙과 기독교, 카톨릭 신앙이 공존하고 있으며 개인신앙은 선왕제 이외에는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부분이 불교적 성향이 강하였으나 이러한 성향과는 달리 舍島에 걸쳐 寺刹이 전혀 없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독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공인종교, 부락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락제와 당신앙, 그리고 개인적인 비념을 비는 개인신앙의 순서

로 정리하였다.

II. 공인종교

상추자에 성당과 교회 각각 한 개소, 그리고 하추자에 교회 세 개소가 있다. 마을별 분포현황을 보면 하추자의 예초리, 묵리, 영흥리에 각각 한 개소씩, 그리고 상추자의 대서리에 두 개소가 있다. 대서리와 영흥리는 행정구역상 두개리로 나누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이렇게 볼 때 각 마을당 한 개소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추광교회>

① 위 치 : 대서리

② 연 혁 : 1951년 10월 1일 설립.

이광목 목사가 6·25사변 당시 제주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추자도에 상륙하여 화를 피하였다. 그 후 제주도로 돌아가 목숨을 건져준 추자섬에 자신이 직접 전도비를 부담하여 목사님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광목 목사의 '광'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③ 교인현황 : 아동부(160명), 중등부(60명), 장년부(150명)

④ 주민들과의 관계 : 다른 섬에 비해 기독교가 널리 포교되었으나 신앙이 두텁지는 않다. 하지만 교회 행사시에 헌금을 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⑤ 포교지역 : 상추자지역

(제보자 : 추경민)

2. 천주교 <추자 공소>

① 연 혁 : 목포 상정동에 있던 아일랜드 신부가 포교하였으나(1900년경) 건물은 1974년 4월에 지었다.

- ② 교인현황 : 교적에 올라있는 신도수는 200명 정도이나 신자수는 60~70명 정도이다.
- ③ 성당운영 : <제주 서문 성당>소속으로 교구청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있다. 신부가 없는 관계로 주일미사를 할 수 없고 '공소예절'을 지낸다. 두달에 한번씩 신부가 방문하여 고백성사나 주일미사를 시행한다.
- ④ 주민들과의 관계 : 교회 행사시 주민들이 헌금을 하는 등 긍정적이다.
(제보자 : 윤옥주, 55세)

3. 기독교 장로회<신양교회>

- ① 연 혁 : 1925년 경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묵리, 예초리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이 마을 주민들이 신양교회에 다녔다.
- ② 교인현황 : 신양리 전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 ③ 포교지역 : 신양리
- ④ 주민들과의 관계 : 대체로 우호적이다.

4.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초교회>

- ① 연 혁 : 6·25때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신앙을 심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공회당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으며 신양교회 전도사가 설교를 하였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신양교회에 다녔다. 1989년에 제주시 <제광교회>의 조태조 장로와 황보란 전도사가 힘을 모아 교회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② 교인현황 : 전체주민 300여명 중 52명이 신도이며 이 중 30~50대 19명, 60세이상 20명, 학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포교지역 : 예초리
- ④ 주민들과의 관계 : 우호적이다.

5. 대한예수교 장로회<추자실로암교회>

- ① 연 혁 : 신양교회 전도사인 박성규씨가 독립을 하면서 교회가 설립되

었는데, 그 이전에는 신도들이 신양교회에 다녔다.

- ② 교인현황 : 장년부 35명, 학생 45명으로 전체 주민의 약 10%정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 ③ 포교지역 : 묵리.
- ④ 주민들과의 관계 : 대체로 우호적이다.

(제보자 : 박성철, 32세)

Ⅲ. 부락 신앙

1. 상추자의 풍어제

상추자의 풍어제는 세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영흥리 뒷산(제 2저수지 밑)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그리고 대서리 최영장군 사당에서 당제를 지낸 뒤에 해신제를 지냄으로써 끝을 낸다. 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 신 제

- ① 제일 : 대제(음력 2월15일)를 모시는 날 해가 질 무렵 행한다.
- ② 제장 : 영흥리 뒷산.
- ③ 제물 : 메, 사과, 나물, 편(떡), 제주
- ④ 제관 : 대제를 모시는 제관이 병행한다.
- ⑤ 음복 : 제관만 먹고 남은 것은 묻어 버린다.
- ⑥ 축문

維歲次丁卯 0月 00日 祝官 000 獻官 000 敢昭告于

顯大山之神 靈今爲麗朝都統使崔榮大將軍詞堂豐漁祭尊獻植民靈驗感化存神魚類多產海有豐漁疾災除去衆民安堵願禱甘雨五穀成熟神其保佑賴此福利衆庶奉香略諫微誠謹以清酌醴薦靈神尚饗

- ⑦ 기타 : 영흥리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 당은 최영장군당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으며, 또한 제관들이 당 밑에 천막을 치고 정성을 드리던 당이다. 그러나 최영장군당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제사방법으로 바뀌었다. 지금도 영흥리의 부락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락신앙으로 남아 있어서 해

신제를 지낸 뒤 장군당보다 먼저 찾아가 제를 지내고 있다.

(2) 장군제

- ① 제명 : 장군제, 당제.
- ② 제신 : 祖國都統大將崔將軍神
- ③ 제일 : 떨치 풍어때인 음력 7월에 지냈으나 지금은 음력 2월 15일로 옮겼다. 하지만 택일하여 좋지 않으면 제일을 옮긴다고 한다.
- ④ 제장 : 최영장군 묘당(상추자 국민학교 뒷편)
- ⑤ 제의 관리 : 전에는 선주들이 운번제로 관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다.
- ⑥ 제비 : 선주들이 공동으로 제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협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각 기관에서 보조하여 제를 지낸다.
- ⑦ 제관 : 축관(1), 제관(1)
- ⑧ 제물 : 메, 국(쇠머리 삶은 물), 어물(산치, 도미, 갈치, 방어, 조기), 나물(시금치, 콩나물, 녹두마늘, 둠부기), 소 한마리(머리, 고기는 삶고 내장은 생으로 올린다.)
- ⑨ 음복 : 제관과 참여자들이 음복하고 남은 음식은 땅에 묻어버린다.
- ⑩ 神位 : 오른편과 옆간에 창호지가 두개씩 걸려 있는데 이것은 호위병이다. 설상시 장군과 똑같은 제물을 올리며 다만, 그릇의 크기를 달리한다.
- ⑪ 재계 : 제관은 일주일간 집에서 근신하며 <큰샘물>에서 목욕재계를 한다. 이 샘물은 100년 전 쯤부터 있었는데 제를 지낼 시기에는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제일 일주일 전부터 금줄을 치며 개고기를 금한다.

⑫ 축문

維歲次丁卯 0月 00日 祝官 000 獻官 000 敢昭告于

顯麗朝都統使崔榮大將軍之神靈節斧摩獻候風斯土穆朱殷往往專濡恤民靈驗感化
存神神其保佑厥德方亨略陳微誠奉獻育牲魚類多產海有豐漁顯堵時雨五穀成熟疾
災除去衆民安堵謹以清酌脯醢薦靈神尚饗



〈최영장군 사당〉

(3) 해신제

- ① 제신 : 용왕지신
- ② 제물 : 장군제와 같다.
- ③ 제장 : 장군당에서 오른쪽으로 50미터 해안 쪽에 있는 바위
- ④ 제차 : 장군제를 끝내고 해신제 제단에서 제를 지낸다. 걸궁패들이 한마당을 벌인 뒤 제관이 고축하며 제물을 바다에 던진다.
- ⑤ 축문

維歲次丁卯 0月 00日 祝官 000 獻官 000 敢昭告于

海龍之神靈今爲麗朝都統使崔榮大將軍詞堂豐漁祭奉獻伏惟海中有此孤島衆民牧居海田爲農神其保佑賴此福利衆庶奉香略諫微誠風浪順船人命安存魚類多產願塔豐漁謹以清酌脯醢祗薦靈神尚饗

2. 하추자의 풍어제

(1) 당 제

① 제신 : 바다용왕

② 제일 : 정월 초하룻날 밤 1시경. (예전에는 정월 초하룻날, 설달 그믐날 두번 지냈다고 한다.)

③ 제물 : 해물 (뚝부기, 고사리, 콩나물, 비늘있는 고기 등을 쓰며 육고기는 쓰지 않는다.)

④ 제비 : 부락민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⑤ 제관 : 설달 그믐 연말 총결산 때 정한다.

⑥ 금기 : 제관집에 금줄을 치고 소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불길한 일을 하지 않는다.

⑦ 음복 : 전부 묻어 버린다.

⑧ 제기 및 제복 :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고 제관집의 것을 이용한다.

⑨ 제차 : 밤 12시쯤 제물을 가지고 제관과 보조자(2명 정도)가 함께 가서 밤 1시에 제를 지낸다. 제가 끝났을 때 제관이 창호지에 쓴 밤을 각 선주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바다에 던져 풍어를 기원한다.



〈하추자의 당〉

(2) 장승 제

- ① 제신 : 특별하게 모시는 신은 없으며 예전에 장승이 있던 자리에 고목이 있었다고 한다.
- ② 제물 : 돛부기, 고사리, 콩나물. 육고기는 안씀
- ③ 제일 : 제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지낸다.
- ④ 음복 : 모두 묻어 버린다.
- ⑤ 축문 : 없으며 고축도 하지 않는다.
- ⑥ 제장 : 마을 입구 장승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낸다.



〈하추자의 장승〉

(3) 해신 제

상추자 주민들과 함께 장군당에서 제를 지낸다.

3. 황간도의 풍어제

(1) 당제, 산신제

- ① 제신 : 한하르방
- ② 제일 : 정월 대보름
- ③ 제물 : 메 (8), 돛부기. 동물성 제물은 피한다.
- ④ 제비 : 부락민이 공동 부담한다.
- ⑤ 제관 : 과거에는 촉관과 제관이 함께 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제관이 도맡아 지내고 있다. 제관은 제일에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을 접처 선정한다.
- ⑥ 축문 : 한낱 축문이 아니라 고축으로 끝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 ⑦ 금기 : 제 지내는 기간에 주민들은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이 기간을 피하며 서로 조용하게 지낸다. 마을 뒤 바닷가에 샘물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식수로 쓰인다. 하지만 제일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샘물가를 청소하고 발을 덮어두었다가 제에 쓴다.
- ⑧ 음복 : 제관이 먹고 나머지는 묻어 버린다.
- ⑨ 비념곳 : 비념할 때는 밥 세 그릇이나 쌀, 돛부기를 가지고 간다.
- ⑩ 제차 : 상단 하르방 신위 앞에 다른 제기의 배가 되는 큰 제기로 메밥 (2)과 돛부기를 올리고 다른 방향에 각각 메밥 두그릇씩을 올린다. 이렇게 실상하고 삼배를 드린 다음 바닷가로 내려와 해신제를 지낸다. 그리고 다시 산신제 제단에 올라가 파제한다.
- ⑪ 예조 : 제단 음식이나 금줄에 묶인 쌀주머니가 동물에 의해 뜯긴 흔적이 있으면 흉험이 따른다고 한다 (어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해초가 나지 않으며, 제관이 병에 걸린다고 한다.).

(2) 해신제 (용왕제)

- ① 제신 : 용왕지신
- ② 제일 : 정월 초하루, 당제 (정월 대보름) 익일 (옛날에는 여름에도 지냈다고 한다.)
- ③ 제장 : 바닷가 (부두 근처)
- ④ 제물 : 메 (水死者 數에 맞춤), 돛부기, 청과, 채소, 고기류 등
- ⑤ 음복 : 제를 끝낸 뒤 갯가에 버린다.



〈황간도 한하르방당〉

- ⑥ 제차 : 각 호당 제물을 한 상씩 차려 해안가에서 제를 지낸다. 걸궁패들이 흥을 돋군 뒤 제를 지내게 된다. 당제 익일에는 당제 제관이 공동으로 제를 지내지만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비념을 드리며 제를 지낸다.
- ⑦ 예조 : 용왕배를 만들어 각 호별로 제물을 조금씩 덜어 실고 바다에 띄운다. 배가 순탄하게 나가면 용왕이 소원을 들어 주는 것으로 믿는다.

IV. 개인 신앙

개인신앙으로는 유일하게 <선왕제>가 있을 뿐이다.

- ① 제명 : 배코소
- ② 제신 : 선왕(삼색실(빨강, 노랑, 녹색천)을 브릿지 안에 걸어두고 모신다.)

- ③ 제일 : 삼치짓기(음력 7월, 설달 그믐)에 한다. 택일은 하지 않고 날씨가 좋은 날에 제를 지낸다.
- ④ 제장 : 배위에서 하는데 브릿지 안에서는 선왕에게 제를 올리고 미물이나 고물에서는 수사(水死)한 사람들에게 제를 지낸다.
- ⑤ 제물 : 사과, 고사리, 돛부기, 도미, 삼치, 멧밥(국은 올리지 않는다.) 제물은 선왕과 수사(水死)한 사람들에게 모두 같은 것을 올리는데 수사(水死)한 사람들에게는 그 수 만큼 멧밥을 올린다. 그러나 선왕에게는 밥을 올리지 않는다.
- ⑥ 제차 : 선왕에게 술을 쌍잔으로 올리고 제를 지내는데 제의 순서는 일반가정에서 제사지내는 순서와 같다. 제 시간은 15~20분으로 빨리 지내 버리며 그 이유는 盛漁期에 일손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일컬어 “멧밥 서호밥”이라고 한다.
- ⑦ 음복 : 조금씩 떠서 바다 위에다 버린 후 나머지는 먹거나 혹은 모두 버린다.

(제보자 : 지도연, 56세)